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현 경 실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중등 음악과 임용시험 기출문항
분석 연구

-2009~2018년도 서양음악 문항을 중심으로-

2018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강 한 샘

중등 음악과 임용시험 기출문항
분석 연구

-2009~2018년도 서양음악 문항을 중심으로-

현 경 실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강 한 샘

인 준 서

강한샘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8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중등 음악과 임용시험을 서양음악 문항 중심으로 분석하여 출제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기출문항과 교과서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예비교사들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해당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9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10년간 출제된 음악과 전공필기문항을 대상으로 문항내용과 배점비율을 분석하고, 문항유형(객관식, 주관식)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서양음악 출제악곡을 교과서에서 찾아 출제근거를 밝혔다. 서양음악 문항 분석도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8)의 「중등 음악교과 임용시험 평가영역 및 평가내용요소」를 바탕으로 수정하였으며, 문항유형 분석도구는 블룸(Bloom)의 전통적 교육목표분류학을 개정한 앤더슨(Anderson)의 인지적 영역 분류체계표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과 임용시험 영역 간 배점비율을 분석한 결과, 교과내용학 중 국악(34.6%)이 가장 높았으며 (음악)교과교육학(31.9%)이 가장 낮았다. 차시별로는 1차(전공A)에서 교과내용학이, 2차(전공B)에서는 교과교육학의 배점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서양음악 문항을 세부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전 영역에서 고르게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영역은 ‘서양음악사(52회)’와 ‘화성법(49회)’이었으며, 매년 출제되는 세부평가영역은 ‘음악형식론-악곡형식’과 ‘화성법-화음’이었다. 배점비율은 ‘서양음악사(51.8%)’가 가장 높았고 ‘화성법(18.1%)’이 그 뒤를 이었다.

셋째, 블룸의 신(新)교육목표분류학(앤더슨의 인지적 영역 분류체계표)으로 문항유형을 분석한 결과, 객관식이 주관식보다 고차원적인 문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식을 기입형과 서술·논술형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로는 서술·논술형 문항이 기입형보다 다양한 지식과 인지과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서양음악 출제악곡의 시대별 문항 수는 ‘근·현대(9회)’, ‘낭만(8회)’ 순으로 많았으며, ‘고대·중세(2회)’가 가장 적었다. 배점비율은 ‘근·현대(50.1%)’, ‘고대·중세(18.4%)’ 순으로 높았으며, ‘고전(5.4%)’이 가장 낮았다.

다섯째, 악곡출처 분석결과, 전체 악곡 중 75.8%를 2009 개정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찾을 수 있었고, 출처를 찾지 못한 악곡은 62곡 중 5곡(8.1%)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음악과 임용시험의 출제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예비교사들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임용시험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목 차

논 문 개 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3
3. 용어 정의	4
4. 연구의 제한점	4
II. 이론적 배경	5
1. 중등 음악과 임용시험 제도	5
1) 시험 제도의 변천	5
2) 현행 제도	7
3) 지원 현황	12
2. 블룸의 교육목표분류학	13
1) 블룸의 전통적 교육목표분류학	13
2) 블룸의 새로운 교육목표분류학	15
3. 선행 연구 고찰	20
III. 연구 방법	25
1. 연구 대상 및 범위	25
2. 분석 도구	26
1) 서양음악 문항 분석도구	26

2) 문항유형 분석도구	27
3) 악곡출처 분석도구	29
3. 연구 방법 및 절차	31
IV. 연구 결과 및 해석	32
1. 음악과 임용시험 영역 간 배점비율 분석	32
2. 서양음악 문항내용 분석	42
3. 서양음악 문항유형 분석	55
4. 서양음악 출제악곡 분석	61
5. 연구결과 요약	71
V. 결론	73

참 고 문 헌

ABSTRACT

표 목 차

<표Ⅱ-1> 1차 시험 형태	8
<표Ⅱ-2> 1차 시험 출제 범위 및 내용	8
<표Ⅱ-3> 음악과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	9
<표Ⅱ-4> 2차 시험 형태	10
<표Ⅱ-5> 2차 시험 출제 범위 및 내용	10
<표Ⅱ-6> 2018년도 지역별 음악과 실기과목	11
<표Ⅱ-7> 최근 5년간 중등 음악과 임용시험 전국지원현황(지역·장애 포함)	12
<표Ⅱ-8> 블룸 등의 인지적 영역 분류체계	14
<표Ⅱ-9> 블룸과 하우엔스타인의 인지적 영역 분류체계 비교	16
<표Ⅱ-10> 블룸과 앤더슨의 인지적 영역 분류체계 비교	17
<표Ⅱ-11> 앤더슨과 마르자노의 인지적 영역 분류체계 비교	19
<표Ⅲ-1> 연구대상	25
<표Ⅲ-2> 서양음악 문항 분석도구	26
<표Ⅲ-3> 문항유형 분석도구	27
<표Ⅲ-4> 지식차원 세부내용	28
<표Ⅲ-5> 인지과정차원 세부내용	29
<표Ⅲ-6> 2009 개정 중·고등학교 음악교과서 목록	29
<표Ⅲ-7> 서양음악 이론서 목록	30
<표Ⅲ-8> 분석도구 개발단계	31
<표Ⅲ-9> 문항 분석방법	31
<표Ⅳ-1> 2012년도 2차 1번 문항 분류예시	33
<표Ⅳ-2> 차시별 문항유형	33

<표Ⅳ-3> 2009년도 영역 간 배점비율	34
<표Ⅳ-4> 2010년도 영역 간 배점비율	34
<표Ⅳ-5> 2011년도 영역 간 배점비율	35
<표Ⅳ-6> 2012년도 영역 간 배점비율	35
<표Ⅳ-7> 2013년도 영역 간 배점비율	36
<표Ⅳ-8> 2014년도 영역 간 배점비율	36
<표Ⅳ-9> 2015년도 영역 간 배점비율	37
<표Ⅳ-10> 2016년도 영역 간 배점비율	37
<표Ⅳ-11> 2017년도 영역 간 배점비율	38
<표Ⅳ-12> 2018년도 영역 간 배점비율	38
<표Ⅳ-13> 2009-2018년도 영역 간 배점비율	39
<표Ⅳ-14> 2014년도 기준 배점비율 비교	40
<표Ⅳ-15> 문항유형별(객관식, 주관식) 배점비율 비교	41
<표Ⅳ-16> 2017년도 전공A 12번 문항 분류예시	43
<표Ⅳ-17> 서양음악 세부영역별 배점비율	44
<표Ⅳ-18> 서양음악 세부영역별 출제빈도수	45
<표Ⅳ-19> 문항유형별(객관식, 주관식) 서양음악 세부영역 출제비율 비교	46
<표Ⅳ-20> 대위법의 10년간 출제경향	47
<표Ⅳ-21> 반주의 10년간 출제경향	48
<표Ⅳ-22> 작곡의 10년간 출제경향	48
<표Ⅳ-23> 지휘의 10년간 출제경향	49
<표Ⅳ-24> 서양음악사의 10년간 출제경향	49
<표Ⅳ-25> 서양음악사 시대별 출제된 작곡가	50
<표Ⅳ-26> 악기론의 10년간 출제경향	51
<표Ⅳ-27> 연주형태의 10년간 출제경향	51

<표IV-28> 음악분석의 10년간 출제경향	52
<표IV-29> 음악통론의 10년간 출제경향	52
<표IV-30> 음악형식론의 10년간 출제경향	53
<표IV-31> 화성법의 10년간 출제경향	53
<표IV-32> 비화성음, 화음의 세부영역 출제경향	54
<표IV-33> 2015년도 서술형 3번 문항 분류예시	56
<표IV-34> 지식차원 분류예시	56
<표IV-35> 인지과정차원 분류예시	56
<표IV-36> 연도별 블룸의 문항유형 분석	57
<표IV-37> 문항유형별(객관식, 주관식) 블룸의 문항유형 비교	58
<표IV-38> 문항유형별(기입형, 서술·논술형) 블룸의 문항유형 비교	60
<표IV-39> 악곡의 시대별 배점비율	61
<표IV-40> 악곡의 시대별 출제빈도수	62
<표IV-41> 문항유형별(객관식, 주관식) 악곡의 시대별 출제비율 비교	63
<표IV-42> 고대·중세 악곡의 출처분석	64
<표IV-43> 르네상스 악곡의 출처분석	65
<표IV-44> 바로크 악곡의 출처분석	65
<표IV-45> 고전 악곡의 출처분석	66
<표IV-46> 낭만 악곡의 출처분석	67
<표IV-47> 근·현대 악곡의 출처분석	69
<표IV-48> 비서구권 악곡의 출처분석	70

그림 목 차

[그림Ⅱ-1] 마르자노 등이 제시한 행동모형	18
[그림Ⅳ-1] 2012년도 2차 시험 1번 문항	32
[그림Ⅳ-2] 2009-2018년도 차시별 영역 간 배점비율	39
[그림Ⅳ-3] 2014년도 기준 배점비율 비교	40
[그림Ⅳ-4] 문항유형별(객관식, 주관식) 배점비율 비교	41
[그림Ⅳ-5] 2017년도 전공A 12번 문항	42
[그림Ⅳ-6] 2015년도 서술형 3번 문항	55
[그림Ⅳ-7] 문항유형별(객관식, 주관식) 악곡의 시대별 출제비율 비교	63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현대 사회의 패러다임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명명했다. ICT의 질적·양적 변화와 융합기술의 팽창력이 새로운 사회를 규정짓게 한 것이다.¹⁾ 과학기술의 발달은 사회체제와 직업구조의 변화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교육의 방향과 학교 및 교사의 역할이 달라지게 되었다.²⁾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에 따르면, 호주,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독일,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은 새로운 사회에 대비하여 ‘역량 중심 교육으로의 변화’, ‘학교 교육 방향 재조정’ 등의 시도를 하고 있다.³⁾ 우리나라 역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6가지 핵심역량⁴⁾을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교육의 방향을 재조정하였다. 하지만 교사의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교육의 재정비는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 이는 학교교육에서 교사역량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말이다. 아무리 새로운 사회에 적합한 교육정책이나 최상의 교육여건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해낼 수 있는 교사가 없다면 질 높은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즉, 새로운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역량이 중요하다.

1) 미래사회연구실(2015). ECOsight 3.0: 미래기술 전망. ECO시리즈, 15(2), p.4.

2) 임중현, 유경훈, 김병찬(2017).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교육의 방향과 교원의 역량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교육, 44(2), p.14.

3) 이근호, 이광우, 박지만, 박민정(2013),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 연구(연구보고 CRC 2013-17),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pp.89-90.

4)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전통적 교육에서 교사는 주로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지식전달자의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미래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교육의 방향이 바뀌었고, 더 이상 지식을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는 교육은 환영받지 못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새로운 교육과정은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⁵⁾ 이에 따라 지식전달자의 역할을 하던 교사는 학생 참여형 수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는 촉진자, 조력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렇듯 최근 교육에서 요구하는 교사의 역할은 달라졌으며, 이러한 교사의 역량에 초점을 맞춰 교사양성 및 선발제도를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중등 임용시험은 1991년 교대 및 국립 사범대학 졸업생까지를 대상으로 포함한 제1회 교원공개임용이 실시된 이래로 여러 차례 개선되어 왔다.⁶⁾ 교육평가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2009년에 10여 년간 유지되었던 시험제도를 3단계 전형으로 크게 개편하였다. 출제문항의 타당도를 제고하기 위해 과목별로 평가영역과 평가내용요소를 고시하고, 1단계 지필시험의 문항유형을 객관식으로 변경한 것이다.⁷⁾ 그러나 이러한 3단계 전형은 불과 5년 만에 사라지게 되었다. 2014년에 2회에 걸쳐 실시하던 지필평가를 1회로 단축시키고, 문항유형을 객관식에서 주관식으로 다시 변경한 것이다. 이와 같은 2단계 전형은 현재까지 5년간 유지되고 있지만, 주관식 문항에 대한 모범답안과 채점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RISS 검색결과에 따르면, 과목별로 평가영역이 고시된 2009년 이후, 음악

5)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2015). 2015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6) 김용재(1991. 1. 21.). "91解剖(해부)교원공개임용". 경향신문, p. 17. 2017. 10. 28. 검색.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1012100329217001&edtNo>

7) 이인제, 이명준, 이창훈, 동효관, 남민우, 박선화, 신항수, 심재호, 서지영, 조성기, 양윤정, 김진석, 오상철, 이용백, 이수정, 이재봉, 황인표(2008). 2009학년도 개편 중등교사신규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의 『표시과목』의 교사 자격 기준 개발과 평가 영역 상세화 및 수업 능력 평가 연구(연구보고 CRE 2008-9-5).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과 출제경향 분석연구나 분석결과에 따른 교과과정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세부영역별로 문항을 분석한 연구는 ‘국악’ 문항을 분석한 연구⁸⁾와 ‘음악교육론’, ‘국악이론’, ‘서양음악사’의 세 분야만을 분석한 연구⁹⁾만 이루어졌으며, ‘서양음악’ 문항을 분석한 연구는 2008년까지의 문항을 분석한 연구¹⁰⁾ 뿐이었다. 따라서 2009년 이후 출제된 서양음악 평가영역의 세부 분석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예비교사들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임용시험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지, 임용시험에는 어떤 문항유형(객관식, 주관식)이 적합한지에 대한 연구 역시 출제방향을 설정하고 임용제도를 개선해야하는 현재 시점에 있어서 필요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양음악 평가영역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출제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기출문항과 교과서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예비교사들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해당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아가 새로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가진 교사를 선발해야하는 임용시험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9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출제된 음악과 임용시험의 영역 간 배점비율은 어떠한가?

둘째, 서양음악 문항내용은 어떠한가?

8) 김재연(2010). 중등교사 신규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음악과 출제 문항 분석 연구: 2005년부터 2010년 국악 문항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유정은(2015). 음악중등교사 임용고시의 분야별 기출문항 분석. 음악교육공학, 25, pp.253-283.

10) 김소영(2009). 음악과 중등 임용고사 분석 연구: 2003~2008년도 서양음악 필기 시험 중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셋째, bloom의 신교육목표분류학에 따른 서양음악 문항유형은 어떠한가?

넷째, 서양음악 출제악곡의 시대별 문항수와 배점비율은 어떠한가?

다섯째, 서양음악 출제악곡의 출처는 어떠한가?

3. 용어 정의

1) 서양음악 문항: 서양음악 내용을 포함한 모든 문항을 말한다. 단, 통합 문항일 경우, 서양음악에 대한 내용만을 추출한 것이 해당한다.

2) 통합문항: 두 개 이상의 평가영역이 결합된 문항을 뜻한다. 예를 들어 '서양음악'과 '음악교육론'에 대한 내용을 함께 물어보는 문항, 서양음악 내에서도 '대위법'과 '악기론'에 대한 내용을 함께 물어보는 문항 등이 해당한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양음악 평가영역 분석도구는 「중등 음악교과 임용시험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요소」를 바탕으로 교과서와 이론서를 참고하여 수정하였으며, 연구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되었으므로 객관성이 부족할 수 있다.

둘째, 하나의 문항이 다수의 평가영역에 복수로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영역의 출제빈도수 총합은 실제 문항 개수보다 많다. 예를 들어, 하나의 서양음악 문항이 '악기론', '음악통론'의 2개 영역에 해당된다면, 실제 문항개수는 1개이나 출제빈도수의 총합은 2개로 나타나 그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중등 음악과 임용시험 제도

1) 시험 제도의 변천

우리나라 초기 임용제도는 ‘무시험 전형고시’로, 국립사범대 졸업자를 국립학교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었다.¹¹⁾ 현재와 같이 시험을 통해 교원을 선발하는 형태의 임용제도는 1973년 처음 실시되었지만, 무시험 전형고시는 그대로 유지된 채 사립사대출신자, 국·사립대 교직과목이수자, 교원자격시험합격자 등을 대상으로 ‘교원채용순위고사’를 실시하는데 머물렀다.¹²⁾ 이때의 고사과목은 전공과 교육학의 두 과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전공 60점·교육학 40점의 배점으로 실시되었다. 신규임용순위는 국립교대 및 사대출업자를 우선 배정한 뒤 순위고사의 성적에 따라 채용하였다.¹³⁾ 이후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가 교대 및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를 국공립 교사로 우선 임용하도록 하는 당시 교육공무원법 제 11조 1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¹⁴⁾ 이에 따라 1991년에 교대 및 국립 사범대학 졸

11) “無試驗(무시험)·銓衡(전형)·考試(고시) 敎員資格檢定令(교원자격검정령)”. (1964. 2. 22.). 경향신문, p.7. 2018. 3. 23. 검색.

12) “敎員(교원)채용順位(순위)고사 6月下旬(월하순)실시”. (1973. 5. 22.). 경향신문, p. 7. 2017. 11. 21. 검색.

13) “國立敎大(국립교대)·師大生(사대생) 우선 敎員採用(교원채용) 順位(순위)고사施行(시행)지침”. (1973. 8. 3.). 경향신문, p. 7. 2017. 11. 21. 검색.

14) “국공립師大(사대)출신 우선임용 敎育公무원법 違憲(위헌)결정”. (1990. 10. 8.). 동아일보, p. 19. 2017. 10. 28. 검색.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0100800209219002&edtNo>

업자를 포함한 교원공개임용시험이 처음 실시되었다.¹⁵⁾ 그 이후 현재 2018년까지 임용시험 제도가 몇 차례 개선되었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991년부터 1995년까지의 임용시험은 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시험은 1차 지필평가와 2차 논술·면접시험의 2단계 전형으로 실시되었고, 이후 제도 변화에 따라 조금씩 달랐지만 대체로 1차 시험은 교육학과 전공과목으로, 2차 시험은 면접 및 실기시험의 형태로 구성되었다.¹⁶⁾ 1996년부터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출제와 채점을 담당하였으며, 객관식 문항에서 주관식 문항으로 변경되었다.¹⁷⁾ 하지만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01년 교육평가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출제기관이 다시 한 번 변경되었다.¹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9년에 10여 년간 유지되었던 시험제도를 크게 개편하였다. 이때 1차 지필평가를 2회로 분리한 3단계 전형이 마련되었는데, 1단계 지필시험의 문항유형을 객관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채점에 대한 객관성을 부분 확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3단계 전형은 불과 5년 만에 다시 개편되었다. 2014년에 2회에 걸쳐 실시하던 지필평가를 1회로 단축시키고, 문항유형을 객관식에서 주관식(기입형, 서술형 및 논술형)으로 다시 변경한 것이다. 이와 같은 2단계 전형은 현재까지 5년간 유지되고 있다.

15) 김용재(1991.1.21.). “91解剖(해부)교원공개임용”. 경향신문, p.17, 2017. 10. 28. 검색.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1012100329217001&edtNo>

16) 최상훈(2003). 역사과 교원임용고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육논총7, pp.356-357.

17) 위의 논문. p.358.

18)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0년사. p. 158.

2) 현행 제도¹⁹⁾

현재 2018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은 교육공무원법(개정 2016. 1. 27.) 및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 2016. 1. 6.)과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개정 2014. 8. 8.)에 근거하여 매년 1회 시행되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시행공고, 원서 교부 및 접수, 문답지 운송, 시험 실시 및 합격자 발표를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1차 시험의 출제 및 채점과 2차 시험의 출제를 담당하고 있다.

합격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1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성적과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된다. 합격자 수는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1.5 배수이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하고 있다.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성적을 합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된다. 합격자 수는 과목별 선발예정인원 이내로 하며, 동점자의 우선선발순위는 지역별로 다르다.

(1) 1차 시험

① 시험 형태

1차 시험은 지필평가로, 과목은 교육학과 전공교과이다. 총 3교시에 걸쳐 실시되며, 문항유형은 주관식(기입형, 서술형, 논술형)이다. 다음 <표Ⅱ-1>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한 2018학년도 1차 시험 과목, 시험 시간 및 문항 유형을 고시한 표이다.

1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http://www.kice.re.kr>). 2017. 11. 21. 검색.

<표Ⅱ-1> 1차 시험 형태

교시	1교시: 교육학	2교시: 전공 A		3교시: 전공 B		
출제 분야	교육학	교과교육학(25%-35%), 교과내용학(65-75%)				
시험 시간	60분 (9:00-10:00)	90분 (10:40-12:10)		90분 (12:50-14:20)		
문항 유형	논술형	기입형	서술형	서술형		논술형
문항 수	1문항	8문항	6문항	5문항	2문항	1문항
문항당 배점	20점	2점	4점	4점	5점	10점
교시별 배점	20점	40점		40점		

② 출제 범위 및 내용

1차 지필평가는 교육부고시 제2016-106호(2016. 12. 23.)의 부칙 제3조(경과조치) 10항에 근거하여 출제된다. 다음 <표Ⅱ-2>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고시한 교육학 및 음악교과의 출제 범위 및 내용이다.

<표Ⅱ-2> 1차 시험 출제 범위 및 내용

교시	시험과목	출제 범위 및 내용
1교시	교육학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2교시	전공 A	음악교육론, 음악(국악)교수법, 전공실기, 국악실기, 시창·청음, 국악가창지도법, 합창·합주지도법, 국악개론, 국악사, 서양음악사, 화성법, 음악분석 및 형식론, 장구 반주법, 피아노 반주법
3교시	전공 B	

③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

중등 임용시험은 ‘중등교사 신규임용 시도공동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표시과목별 교사 자격 기준과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를 참고하여 출제한다는 출제 원칙에 의거한다. 음악과 평가 영역은 교과교육학 4개와 교과내용학 28개이며, 평가 내용요소는 45개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표Ⅱ-3>는 음악과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이다.

<표 II-3> 음악과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

구분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평가 영역	평가 내용 요소
교과교육학	음악교육론	음악교육철학	교육철학과 음악교육, 미학적 관점과 음악교육, 현대의 음악교육 철학
		음악과 교육과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변천, 현행 음악과 교육과정, 2007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음악교수법	교수법, 교수·학습 실제, 음악교육심리
		음악과 평가	평가절차, 평가 도구 및 방법
교과내용학	화성법	화음	음정의 이해
			3화음 및 7화음
			변화화음 및 부속화음을 포함한 반음계적 화음
		중지법	정격중지, 반중지, 허위중지 및 변경중지의 분석
		비화성음	화음 밖의 음의 분석 및 명칭
	이조(조옮김)	이조 실습	
		전조(조바꿈)	전조의 이해 및 악곡에서의 전조 과정 분석
	대위법	중별대위법	1:1, 1:2, 1:4 방식에 의한 대위 기법의 이해 및 적용
		악곡분석	모방기법에 의한 인벤션, 푸가의 분석
	음악형식론	악곡형식	동기, 악구, 악절
			2부분형식, 3부분형식, 복합3부분형식 론도형식, 소나타형식
		호모포니양식과 폴리포니양식	양식의 특징과 작품에서의 쓰임새
	연주형태	독주곡, 독창곡	
		실내악곡, 관현악곡 오페라, 오라토리오	
	작곡	선율창작	악구 및 악절 형식으로 된 선율 만들기
		국악창작	가락과 장단을 바꾸어 창작
	서양음악사	시대별 음악양식	고대 및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 낭만, 20세기음악, 세계의 음악
		작곡가와 작품	주요 작곡가들과 이들 작품이 음악사에 끼친 영향
	국악개론	기초이론	기보법, 독보법
			장단의 구조와 관련 용어
			시김새·조·형식 연주 형태
	악곡	악곡의 특징 및 갈래에 따른 분류	
		악기	구조와 특징 및 분류법
	국악실기	성악	여러 갈래의 성악곡 연주
		기악	선율악기 및 타악기 연주
	지휘	음악해석	악기 및 연주매체에 대한 지식 총보 독해력, 음악문헌 지식
		박자짓기	빠르기와 다양한 다이내믹스의 표현
시작, 맺음, 분할법			
한국음악사	음악양식	시대별 음악 양식 이해와 감상	
	인류사	인물 중심의 음악사 이해와 감상	
	교류사	외국과의 음악교류사 이해 및 악곡감상	
장구반주법	기본연주법	주법 및 장단	
	반주법의 적용	한배와 장단의 세(勢)에 알맞은 연주 사실 붙임새에 알맞은 기본형과 변화형 연주	
피아노반주법	반주형태	반주형태, 페달 사용법 리듬형태에 따른 반주법	
	건반화성	화성 진행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8).

(2) 2차 시험

① 시험 형태

2차 시험은 면접, 지도안 작성, 수업능력 평가로 시행되며 그 내용은 시도별·과목별로 상이하다. 다음 <표Ⅱ-4>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고시한 2차 시험 형태이다.

<표Ⅱ-4> 2차 시험 형태

시험 과목	시험 시간
교직적성 심층면접,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수업능력 평가(수업실연, 실기·실험)	시·도교육청 결정

② 출제 범위 및 내용

2차 시험 출제 범위와 내용은 지역별·과목별로 상이하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한 2차 시험 출제 범위는 다음 <표Ⅱ-5>과 같다.

<표Ⅱ-5> 2차 시험 출제 범위 및 내용

시험과목	출제 범위 및 내용	문항수
교직적성 심층면접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원, 인격 및 소양	4문항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1문항
수업실연	수업실연	1문항

③ 지역별 음악과 실기과목

음악과 실기과목과 점수는 지역별로 상이하다. 실기과목의 총점은 대개 30점이나, 경기도의 경우 ‘실기평가 40점, 수업실연 20점, 면접 40점’로 배분되며, 충청남도의 경우 ‘실기평가 70점, 지도안작성 10점,

수업실연 10점, 면접 10점'로 배분된다. 실기과목은 '시창', '청음', 장구 치며 민요를 부르는 '민요범창', 피아노를 치며 노래 부르는 '범주범창', 교과서 악곡을 피아노로 반주하는 '피아노', '악기연주'로 구분된다.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제시한 2차 음악과 실기과목은 다음 <표Ⅱ-6>와 같다.

<표Ⅱ-6> 2018학년도 지역별 음악과 실기과목

지역\과목	시창	청음	민요범창	범주범창	피아노	악기	점수
서울	○	○	○	○			30점
경기	○	○	○		정반주	단소	40점
인천		○	○	○	정반주(이조)		30점
강원		○	○	○		자유악기 ²⁰⁾	30점
대전			○	○		단소	30점
세종	○	○	○	○			30점
충북	○	○	○	○		단소	30점
충남		○	○	○		자유악기 ²¹⁾	70점
전북		○		○		단소	40점
전남	가창	○			응용반주	국악기 ²²⁾	40점
광주	시창, 가창	○	○	○			30점
대구		○		○		소금	30점
경북		○	○	○			30점
경남	○			○			30점
울산		○	○	○			30점
부산		○	○	○		국악기 ²³⁾	30점
제주	가창	○	○		정반주		30점

출처: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고시내용 종합.

20) 피아노 제외

21) 건반악기 제외

22) 가야금, 단소, 소금 중 택1

23) 소금, 대금, 피리, 단소, 해금, 가야금, 거문고, 아쟁 중 택1

3) 지원 현황

중등 음악과 임용시험의 모집인원은 2016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지원자 수는 매해 대폭 늘어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5년 전에 비해 약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모집 인원, 지원자 수, 경쟁률은 다음 <표Ⅱ-7>과 같다.

<표Ⅱ-7> 최근 5년간 중등 음악과 임용시험 전국지원현황(지역·장애 포함)

연도	지역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광주	대구	경북	경남	울산	부산	제주	합계
2014	모집	-	44	9	30	-	16	10	25	3	-	-	10	14	20	6	5	7	199
	지원		310	54	140		117	56	121	26			60	84	167	32	36	45	1,248
	경쟁률		7.1	6	4.7		7.3	5.6	4.8	8.7			6	6	8.4	5.3	7.2	6.4	6.3
2015	모집	7	56	12	21	5	3	10	19	1	23	3	2	20	22	2	8	10	224
	지원	102	327	77	121	54	22	78	100	15	154	28	29	131	148	18	69	33	1,506
	경쟁률	14.6	5.8	6.4	5.8	10.8	7.3	7.8	11.1	15	6.7	9.3	14.5	6.6	6.7	9	8.6	3.3	6.7
2016	모집	25	76	15	24	15	-	20	23	2	16	2	7	16	22	-	13	3	279
	지원	216	470	73	116	128		93	137	14	109	15	59	92	187		85	26	1,820
	경쟁률	8.6	6.2	4.9	4.8	8.5		4.7	6	7	6.8	7.5	8.4	5.8	8.5		6.5	8.7	6.5
2017	모집	30	79	20	14	15	8	15	5	4	9	2	5	2	24	8	17	3	260
	지원	286	469	104	134	144	71	135	39	59	84	27	62	13	184	54	156	36	2,057
	경쟁률	9.5	5.9	5.2	9.6	9.6	8.9	9	7.8	14.8	9.3	13.5	12.4	6.5	7.7	6.8	9.2	12	7.9
2018	모집	45	72	21	8	11	5	17	8	5	10	3	2	5	20	6	11	7	256
	지원	485	461	156	87	129	45	167	64	58	91	50	31	64	216	66	157	73	2,100
	경쟁률	10.8	6.4	7.4	10.9	11.7	9	9.8	8	11.6	9.1	16.7	15.5	12.8	7.2	11	14.3	10.4	8.2

출처: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고시내용 종합.

2. 블룸의 교육목표분류학

1) 블룸의 전통적 교육목표분류학

1956년 「교육목표분류학, 교육목적의 분류, 핸드북 I: 지적 영역」(Bloom, 1956)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된 블룸 등의 교육목표 분류학은 교육과 심리학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특히 평가에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²⁴⁾ 블룸 등은 교육결과 영역을 크게 인지적·정의적·심동적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을 세분화하여 틀로 제시하였다. 이 중 인지적 영역은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의 6개 범주로 나누어진다. 이는 블룸의 분류학을 개정한 다른 이론들의 근간이 되므로 각각의 범주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각 범주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영역은 정보를 인출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둘째, ‘이해’영역은 제시되는 자료의 의미와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영역의 특징은 학습자가 새로운 정보를 본인만의 의사소통 형태를 거쳐 이해한다는 데 있다. 의사소통 형태는 학습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징적 혹은 경험적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셋째, ‘적용’영역은 추상적인 개념을 ‘적절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단, 개념을 떠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단서 또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설명 없이 적용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넷째, ‘분석’영역은 제시된 자료를 부분으로 나누고, 부분들 간의 관련성과 부분들이 하나로 조직되는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다.

다섯째, ‘종합’영역은 부분들을 조합하여 하나의 전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24) Marzano et al.(2012). *The new taxonomy of education objectives*. 강현석 외 (역). 새로운 교육목표 분류학. 서울: 원미사, pp.19-21.

여기에서 학습자가 종합한 결과는 이전에는 분명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이나 구조이다.

여섯째, ‘평가’영역은 무의식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 아닌, 의식적인 의사결정을 말한다. 즉, 학습자가 지식 또는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준을 결정’하거나 또는 ‘주어진 기준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다.²⁵⁾

블룸 등이 제시한 인지적 영역 분류체계는 다음 <표Ⅱ-8>과 같다.

<표Ⅱ-8> 블룸 등의 인지적 영역 분류체계²⁶⁾

범주	하위유목		
1. 지식 Knowledge	1.1 특수 사상(事象)에 관한 지식 1.11 용어에 관한 지식 1.12 특수 사실에 관한 지식	1.2 특수 사상(事象)을 다루는 방법과 수단에 관한 지식 1.21 형식에 관한 지식 1.22 흐름과 계열에 관한 지식 1.23 분류와 범주에 관한 지식 1.24 증거에 관한 지식 1.25 방법론에 관한 지식	1.3 보편적, 추상적 사상(事象)에 관한 지식 1.31 원칙과 일반화에 관한 지식 1.32 이론과 구조에 관한 지식
2. 이해 Comprehension	2.1 번역	2.2 해석	2.3 추론
3. 적용 Application			
4. 분석 Analysis	4.1 요소의 분석	4.2 관계의 분석	4.3 조직원리의 분석
5. 종합 Synthesis	5.1 독특한 의사소통의 창안	5.2 작업 계획이나 제안의 창안	5.3 추상적 관계의 도출
6. 평가 Evaluation	6.1 내적 증거에 의한 판단	6.2 외적 증거에 의한 판단	

25) Marzano et al.(2012). *The new taxonomy of education objectives*. 강현석 외 (역). 새로운 교육목표 분류학. 서울: 원미사, pp.26-31.

26) 임유나(2017). 역량기반 교육목표 개발과 분석을 위한 Hauenstein 신교육목표분류학의 재조명.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1). pp. 771-797. 표1 재인용.

2) 블룸의 새로운 교육목표분류학

‘블룸의 교육목표분류학’은 1956년 블룸 등이 처음 제시한 이래로 여러 연구자에 의해 재구성되었다. ‘전통적 교육목표분류학’이라고도 불리는 블룸의 연구를 바탕으로 발전 및 개정한 연구자는 대표적으로 하우엔스타인(Hauenstein, 1998), 앤더슨(Anderson, 2001), 마르자노(Marzano, 2007)가 있으며, 이들의 이론을 본 연구의 대상이 속하는 ‘인지적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하우엔스타인의 새로운 교육목표분류학

하우엔스타인은 교육목표를 인지적·정의적·심동적 영역으로 나누는 전통적 분류학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졌다.²⁷⁾ 학습자는 학습 과정에서 두뇌, 감정, 신체 중 어느 한 부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모두 활용한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종합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 가지 영역을 ‘행동적 영역’으로 종합하고, 이에 대한 성취수준은 세 영역에서 각각 측정된 것을 평균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보았다.²⁸⁾

다음 <표Ⅱ-9>은 인지적 영역에 초점을 맞춰 블룸과 하우엔스타인을 비교한 것이다.

27) Hauenstein, A. D. (2004). *A conceptual framework for educational objectives*. 김인식 외 (역). 신 교육목표분류학. 경기: 교육과학사. p.31.

28) 임유나(2017). 역량기반 교육목표 개발과 분석을 위한 Hauenstein 신 교육목표분류학의 재조명.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1), pp.771-797.

<표 II-9> 블룸과 하우엔스타인의 인지적 영역 분류체계 비교²⁹⁾

블룸의 인지적 영역					
1. 지식 Knowledge	2. 이해 Comprehension	3. 적용 Application	4. 분석 Analysis	5. 종합 Synthesis	6. 평가 Evaluation
↓					
하우엔스타인의 인지적 영역					
1. 개념화 Conceptualization	2. 이해력 Comprehension	3. 적용력 Application	4. 평가력 Evaluation	5. 종합력 Synthesis	
1.1 확인 1.2 정의 1.3 일반화	2.1 번역 2.2 해석 2.3 추론	3.1 명료화 3.2 해결	4.1 분석 Analysis 4.2 적격판정	5.1 가설 5.2 결정	
↓	↓	↓	↓	↓	
행동적 영역					
획득 Acquisition	동화 Assimilation	순응 Adaptation	수행 Performance	포부 Aspiration	

(2) 앤더슨 등의 새로운 교육목표분류학

앤더슨 등은 전통적 교육목표분류학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첫째, 전통적 교육목표분류학의 가치에 대한 교육자의 관심 재집중, 둘째, 전통적 교육목표분류학이 발간된 1956년 이후 발전된 새로운 지식 반영의 필요성”을 들었다.³⁰⁾

이에 전통적 교육목표분류학의 공동 집필자였던 데이빗 크라스웰(David krathwohl)과 인지 심리학자, 교육과정 이론가, 수업 연구가, 검사 및 측정 전문가 집단의 대표자들과 함께 ‘블룸 교육목표분류학의 개정(A Revision of Blooms’s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이라는 공식명칭으로

29) Hauenstein, A. D. (2004). *A conceptual framework for educational objectives*. 김인식 외 (역). 신 교육목표분류학. 경기: 교육과학사. 표3A, 표6A 재구성.

30) Anderson et al.(2001). *A Taxonomy of Learning, Teaching, and Assessment*. 강현석 외 (역). 교육과정 수업 평가를 위한 새로운 분류학.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pp.11-12.

연구 및 발견하였다.

이들은 학습자가 단순히 교사나 부모 등이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학습자로서 새로운 정보를 의미 있게 구성한다는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이론을 세웠다. 이 관점은 ‘알고 있는 것(지식)’과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인지과정)’를 강조한다.³¹⁾

이에 따라 블룸의 6가지 인지적 영역 중 첫 번째 영역인 ‘지식’을 네 가지 범주의 독립된 ‘지식 차원(The Knowledge Dimensions)’으로, ‘이해’, ‘적용’, ‘분석’, ‘평가’는 여섯 가지 범주의 ‘인지과정 차원(Cognitive Processes)’이라는 별도의 차원으로 각각 분리시켰다.³²⁾

다음 <표Ⅱ-10>은 블룸과 앤더슨의 인지적 영역 분류체계를 비교한 것이다.

<표Ⅱ-10> 블룸과 앤더슨의 인지적 영역 분류체계 비교³³⁾

블룸의 인지적 영역									
1. 지식	2. 이해	3. 적용	4. 분석	5. 종합	6. 평가				
↓									
앤더슨의 인지적 영역									
지식 차원 The Knowledge Dimensions				인지과정 차원 Cognitive Processes					
A. 사실적 지식	B. 개념적 지식	C. 절차적 지식	D. 메타 인지 지식	1. 기억하다	2. 이해하다	3. 적용하다	4. 분석하다	5. 평가하다	6. 창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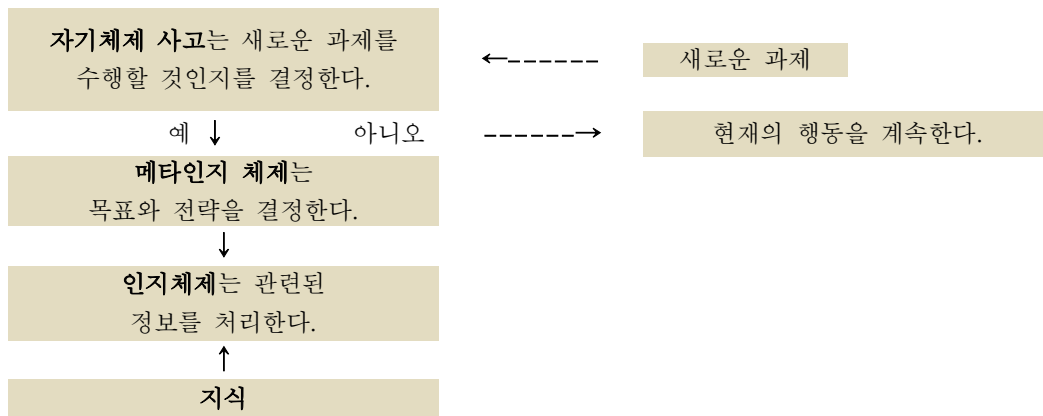
31) 위의 책, p.44.

32) 김옥남(2006). 인지적 영역의 교육목표분류학 비교. 한국교육학연구, 12(2), p.179.

33) Anderson et al.(2001). *A Taxonomy of Learning, Teaching, and Assessment*. 강현석 외 (역). 교육과정 수업 평가를 위한 새로운 분류학.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표 3.1 재구성.

(3) 마르자노 등의 새로운 교육목표분류학³⁴⁾

마르자노 등의 신교육목표분류학은 본 연구에서 살펴본 블룸의 분류학을 개정한 연구들 중 가장 최신의 것이다. 전통적 교육목표분류학에 현대의 새로운 지식을 통합시켜 지금의 교육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들은 기존의 분류학이 영역 간의 구별을 위해 ‘난이도’를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은 난이도 측면에서 위계적으로 정렬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정보처리과정을 ‘난이도’가 아닌 ‘행동모형’으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세 가지 정신적 체제’를 이론에 도입하였다. 다음 [그림 II-1]는 마르자노 등이 제시한 행동모형이다.



[그림 II-1] 마르자노 등이 제시한 행동모형³⁵⁾

위의 행동모형에 따른 인지과정은 ‘자기체제-메타인지체제-인지체제’이며, 이를 전통적 교육목표분류학에 반영하여 이론을 수정하였다.

마르자노가 분류한 인지적 영역은 크게 지식과 인지과정(처리수준)으로

34) Marzano et al(2007). *The new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강현석 외 (역). 새로운 교육목표 분류학. 서울: 원미사.

35) 위의 책. 그림 1-1.

나뉘지며, 이는 앤더슨의 인지적 영역 분류체계와 비교된다. 다음 <표Ⅱ-11>는 마르자노와 앤더슨을 비교한 것이다.

<표Ⅱ-11> 앤더슨과 마르자노의 인지적 영역 분류체계 비교³⁶⁾

앤더슨의 인지적 영역									
지식 차원				인지과정 차원					
사실적 지식	개념적 지식	절차적 지식	메타인지 지식	1. 기억하다	2. 이해하다	3. 적용하다	4. 분석하다	5. 평가하다	6. 창안하다
↓									
마르자노의 인지적 영역									
지식 영역			처리수준						
정보	정신적 절차	심동적 절차	인지체계				5. 메타인지	6. 자기체계	
			1. 인출	2. 이해	3. 분석	4. 지식활용			

이상 블룸의 전통적 교육목표분류학과 여기에서 파생된 새로운 교육목표분류학의 대표적 이론 네 가지를 각각 살펴보았다.

블룸의 분류학은 1956년 출판된 이래 교육과정 개발, 교사의 교육적 논의 뿐 아니라 검사 및 평가하는 것에서도 기준이 되는 이론으로 사용되어 왔다.³⁷⁾ 임용시험은 응시자의 교원자격수준을 ‘평가’하는 제도이므로, 임용문항을 분석하는 본 연구에 블룸의 분류학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블룸 분류학의 개정판으로 공식연구 및 발표된 앤더슨 등의 신(新)교육목표분류학의 ‘인지적 영역 분류체계표’를 문항유형 분석도구로 삼는다.

36) Marzano et al.(2012). *The new taxonomy of education objectives*. 강현석 외 (역). 새로운 교육목표 분류학. 서울: 원미사, 그림 1-2 재구성.

37) 위의 책. p.20.

3. 선행 연구 고찰

본 연구에 앞서 실시된 중등 음악과 임용시험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영미, 최병옥(2013)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음악과 교과내용학 평가영역 및 평가내용요소」가 적용된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문항을 수집하여 출제과목 간 비율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교육과정의 운영과 평가 영역의 재조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을 위해 『2009학년도 개편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음악과」의 교사 자격 기준개발과 평가 영역 상세화 연구』에서 72개의 평가 내용 요소를 추출하고 이에 비추어 연도별로 분석하였으며, 음악교육학과 교수 4인, 음악교사 4인, 최근 임용시험 합격생 5인에게 자문을 받았다.

연구 결과, 과목별 출제비중에 있어서는 ‘국악개론’과 ‘교과교육학’이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12개 과목 중에서 출제 비중이 5% 미만에 해당하는 것이 7과목에 이르렀다. 이처럼 평가요소 간 출제 비중의 차이가 현격하고 특정 평가내용요소가 반복적으로 출제된다면, 수험생으로 하여금 과목에 대한 중요성의 정도를 잘못 인식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교사를 선발하는 시험에서는 지식의 상대적 중요성을 초월하여 평가영역으로 설정된 모든 내용요소들이 균등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타당도를 제고하는 기초자료로 제시한 평가영역과 평가내용요소 중 79%만이 출제되고, 72개 평가내용요소 중에서 약 28개가 반복적으로 출제된다는 점으로 보아 타당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³⁸⁾

38) 김영미, 최병옥(2013). 2009~2013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음악과 문항의 출제 경향 분석. 음악교육연구. 42(3), pp.71-96.

변미혜(2013)는 중등 음악과 임용시험 제도의 실태를 살펴보고 2014년도에 새로 도입될 중등 임용제도의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였다.

2004년도와 2008년도에 고시된 ‘음악과 기본 이수 과목 및 분야’와 ‘전국의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교육과정’을 비교한 결과 실제 이수 과목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사범대학에서는 주로 양악 분야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였으며, 기본이수과목인 ‘국악 교과교육학’은 국립대 1개교에만 설립되어 있었다.

음악과 2차 시험 과목 중 하나인 ‘음악 실기능력 평가’에 대해서는, 평가내용과 방법에 관한 방안은 잘 제시되었으나 각 지역별로 평가 내용이 다르고, 해당 평가 방법만으로는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국악교육 지도 능력을 갖춘 음악교사를 선발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또한 ‘음악 실기능력 평가’와 ‘수업실연’이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음악교사의 수업 실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평가방안을 모색하여 모든 시도교육청에 적용함으로써 지역적 편차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³⁹⁾

윤성원(2015)은 중등 음악과 임용시험 내용을 PCK에 근거하여 탐색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음악과 PCK에 대해 고찰하였다. 교과 일반의 PCK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음악과 PCK의 구성지식을 분류하고, 음악교사 임용시험에 대한 논의기준으로 삼았다. 주요 논의내용은 ‘국가수준 음악교사 자격기준’, ‘기본 이수 과목 또는 분야에 의해 개설된 교원양성기관의 전공과목’과 ‘임용시험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 등이다.

연구자는 PCK의 구성지식을 ‘교수전략’, ‘학생이해’, ‘교육과정’, ‘평가’, ‘환경 및 상황’, ‘교과내용’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1차 전공필기시험에는 PCK 구성지식 중 ‘학생이해’, ‘환경 및 상황’에 대한 문제가 전무하므로 관련 내용의 보강이 필요하다. 둘째, 2차 수

39) 변미혜(2013). 중등 음악 임용교사 제도의 실태 및 개선 방향. 국악과 교육, 36, pp.83-103.

업능력평가에서는 ‘교수전략’, ‘학생이해’, ‘교육과정’, ‘평가’, ‘환경 및 상황’이 고루 평가 될 수 있도록 채점 기준을 수정해야한다. 셋째, 음악교사 임용시험의 발전을 위해 국가수준 음악교사 자격기준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기본 이수 과목 또는 분야를 교과내용 중심으로 ‘교수전략’, ‘학생이해’, ‘교육과정’, ‘평가’, ‘환경 및 상황’ 등이 학습될 수 있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음악교사 임용시험의 제도와 교원 임용시스템의 체계적인 연구와 그에 따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제안하였다.⁴⁰⁾

유정은(2015)은 200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16년간 출제된 중등 음악과 임용고시 문항 중 ‘음악교육론’, ‘국악이론’, ‘서양음악사’의 세 분야를 분석함으로써 기출방향을 설정하고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유의미한 통계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를 위해 공동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표시과목별 교사 자격 기준과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를 세부적인 영역을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재편하였으며, 이에 기반하여 분석한 결과 각 과목의 세부 영역에서 모두 고른 출제 경향을 보였지만 특정 분야가 자주 출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음악교육론에서는 ‘음악과 교육과정’과 ‘음악 교수법’의 출제빈도가 높았으며, 최근에는 ‘인지주의 심리학’과 ‘포괄적 음악교육’ 관련 문항의 출제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악이론에서는 국악곡의 기출빈도가 높았으며, 세부적으로는 ‘선법’, ‘장단’의 기출빈도가 높았다. 국악곡에서 이전에는 ‘민요’의 출제 비중이 높은 편이었지만 최근에는 ‘정악 및 의식음악’의 출제 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서양음악사는 고대,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 낭만, 근·현대로 구분하였으며, 그 중 ‘근·현대 음악사’와 시대 통합형이 빈도수가 가장 높았다. 이처럼 각 과목마다 최근에 특히 자

40) 윤성원(2015). PCK에 근거한 음악교사 임용시험의 내용 탐색. 음악교육공학, 22, pp.147-168.

주 출제되는 분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연구자는 이러한 출제 빈도수에 대하여 현재 음악교육의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유추하였다.⁴¹⁾

김보경(2015)은 2009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7년간 출제된 문항을 분석하여 출제경향을 살펴본 뒤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음악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에 따라 출제문항을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음악과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120명을 대상으로 임용시험에 대한 인식조사를 하였다.

연구 결과,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의 출제빈도는 ‘국악’, ‘서양음악’, ‘음악교육론’, ‘다문화’ 순으로 높았고, 세부적으로는 ‘교육과정’, ‘화성법’, ‘국악악곡’의 출제비중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4년 개정된 임용제도에 대해 응시경험과 무관하게 대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하였으며, 부정적인 의견은 채점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기인했다. 둘째, 수험생들은 합격을 위해 실제 교육현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보다 시험에 나오는 영역 위주로 공부하고 있었고, 이는 임용문제가 이론의 난이도와 복잡성에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상 문항분석과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출제에서 비중 있게 평가되어야 할 세부영역은 실제 교육현장과 가장 연계성이 있는 영역이며, 교과교육학에서는 ‘교수법’, ‘교과의 목적과 목표’가, 교과내용학에서는 ‘합창·합주 지도법’, ‘피아노반주법’의 출제 비중을 높여야한다고 제언했다.⁴²⁾

박미현(2016)은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출제된 중등 음악과 임용시험 문항을 분석하여 출제경향을 알아보고 임용고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활용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문항 분석에 있어서는 두 가지 분석기준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한국교

41) 유정은(2015). 음악중등교사 임용고시의 분야별 기출문항 분석. 음악교육공학, 25, pp.253-283.

42) 김보경(2015). 2009년~2015년 음악과 중등교원임용고사 출제경향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한 출제 원칙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며, 분석 결과 ‘교육과정’, ‘서양음악통론’, ‘국악통론’의 출제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분석기준은 ‘앤더슨(Anderson) 등의 신교육목표분류학’에서 제시한 인지적 영역 분류체계이며, 이에 맞추어 분석한 결과 ‘사실적지식-이해하다’와 ‘사실적지식-기억하다’의 문항유형 출제 빈도수가 높다고 하였다.

연구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한 ‘평가영역 및 평가내용요소’가 문항의 유형이 변경된 2014년도를 기준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두 개 이상의 평가영역이 결합된 ‘통합문항’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고, 임용시험 내용의 타당도에 대해서도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⁴³⁾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중등 음악과 임용시험의 출제 경향을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서양음악 분야만을 미시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서양음악 영역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예비교사들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해당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평가영역과 교과서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차별성 있는 연구가 되도록 진행하고자 한다.

43) 박미현(2016). 2012-2016 음악과 중등교사 임용시험 문항 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범위

본 연구의 대상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과목별로 평가영역과 평가내용이 고시된 2009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음악과 중등교사신규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전공 지필평가 문항을 대상으로 한다. 출제문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출문제 자료마당에서 수집하였다.

둘째, 서양음악과 국악·음악교육학이 혼합된 통합 문항일 경우, 서양음악에 대한 문항만을 분리하여 연구대상에 포함시킨다.

연구대상은 다음 <표Ⅲ-1>과 같다.

<표Ⅲ-1> 연구대상

연도	차시	시험 과목	문항유형	문항수	시험 시간	문항당 배점	총점	출제비율(%)	
								교과 교육학	교과 내용학
'09 - '13	1차	전공	선다형	40문항	120분	1.5, 2, 2.5점	80점	25-35%	65-75%
	2차	전공	논술형(I)	2문항	120분	20-30점	50점	35-50%	45-65%
			논술형(II)	2문항	120분	20-30점	50점	-	-
'14 - '18	1차	전공A	기입형	8-15문항	90분	2점	40점	25-35%	65-75%
			서술형	4-6문항		3-5점			
		전공B	서술형	2-7문항	90분	4, 5점	40점		
			서술형	1-2문항		5-10점			

2. 분석 도구

1) 서양음악 문항 분석도구

본 연구의 서양음악 문항 분석도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8)에서 연구·발표한 「중등 음악교과 임용시험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요소」를 바탕으로 음악과 기본이수과목·교과서·이론서를 참고하여 수정하였다. 수정한 내용은 <표Ⅲ-2>의 오른쪽에 제시하였다.

<표Ⅲ-2> 서양음악 문항 분석도구

평가 영역 (가나다순)	세부 영역	평가 내용 요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8)	
대위법	16세기 대위법	1:1, 1:2, 1:4 방식에 의한 대위 기법의 이해 및 적용	(기존명칭) 종별대위법	
	18세기 대위법	모방기법에 의한 인벤션, 푸가의 분석	(기존명칭) 악곡분석	
반주	피아노 반주법	리듬형태에 따른 반주법, 반주형태, 페달 사용법 등	(기존명칭) 피아노반주법	
	기타 반주법	타브악보 독해력, 기타운지법 등		
작곡	선율 창작	악구 및 악절 형식으로 된 선율 만들기	(내용요소 삭제) 국악창작	
지휘	박자 짓기	빠르기와 다양한 다이내믹스의 표현, 시작, 맺음, 분할법 등	동일	
	총보 독해력	총보 독해력		
서양음악사	시대별 음악양식 및 작곡가와 작품	서구권 음악	고대·중세 (~1450)	동일
			르네상스 (1450-1600)	
			바로크 (1600-1750)	
			고전 (1750-1820)	
			낭만 (1820-1900)	
			근·현대 (1900~)	
	비서구권 음악, 대중음악 등			
악기론	악기에 대한 지식	악기분류, 악기변천, 음역, 주법 등	신설	
	이조악기	이조악기의 이조		
연주형태	연주형태	독주곡, 독창곡, 실내악곡, 관현악곡 등	신설	
음악분석	악곡의 총체적 분석	박자, 리듬, 음계, 형식, 작곡기법 등 음악 내적 요소 중 3개 이상의 총체적 분석	신설	
음악통론	음악통론	보표·음자리표, 음이름, 음계, 마디, 박자, 리듬, 빠르기말, 셈여림말, 나타냄말, 줄임표, 꾸밈음 등	신설	
음악형식론	악곡 형식	동기, 악구, 악절, 동형진행	(내용요소 추가) 동형진행	
		2부분형식, 3부분형식, 복합3부분형식	(내용요소 추가) 춤곡	
		춤곡, 론도, 변주곡, 소나타형식 등		
	호모포니 양식과 폴리포니 양식	양식의 특징과 작품에서의 쓰임새	동일	
화성법	조성	조성분석	(내용요소 추가) 조성	
	화음	음정, 3화음, 7화음, 반음계적 화음 등		
	중지법	정격중지, 반중지, 허위중지 및 변경중지의 분석		
	비화성음	화음 밖의 음의 분석 및 명칭		
	전조(조바꿈)	전조의 이해 및 악곡에서의 전조 과정 분석		

2) 문항유형 분석도구⁴⁴⁾

본 연구의 문항유형 분석도구는 blooms의 전통적 교육목표분류학을 개정한 앤더슨의 ‘인지적 영역 분류체계표’이며, 다음 <표Ⅲ-3>과 같다.

<표Ⅲ-3> 문항유형 분석도구⁴⁵⁾

인지과정차원 지식차원	1.기억하다 Remember	2.이해하다 Understand	3.적용하다 Apply	4.분석하다 Analyze	5.평가하다 Evaluate	6.창안하다 Create
A. 사실적 지식 Factual knowledge						
B. 개념적 지식 Conceptual knowledge						
C. 절차적 지식 Procedural knowledge						
D. 메타인지 지식 Metacognitive knowledge						

(1) 지식차원

인지적 영역의 지식차원은 네 가지 범주로 나뉜다.

첫째, ‘사실적 지식’은 특정 학문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기로 협의한 ‘전문용어’와 사건과 위치, 인물, 날짜 등의 ‘구체적 사실’에 대한 지식이다.

둘째, ‘개념적 지식’은 지식들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분류와 유목’, ‘원리와 일반화’, ‘이론·모형·구조’에 대한 지식이다.

셋째, ‘절차적 지식’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다. 이는 ‘특수한 기능과 알고리즘(algorithm)’, ‘특수한 기법과 방법’, ‘적절한 절차의 사용 시점을 결정하기 위한 준거’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다.

넷째, ‘메타인지 지식’은 학습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적 지식’과 ‘인지과제에 대한 지식’, 자신의 강·약점에 대해 아는 ‘자기-지식’을 포함한다.

44) Anderson et al.(2001). *A Taxonomy of Learning, Teaching, and Assessment*. 강현석 외 (역). 교육과정 수업 평가를 위한 새로운 분류학.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45) 위의 책. 표3.1.

<표Ⅲ-4> 지식차원 세부내용⁴⁶⁾

지식차원			
A. 사실적 지식	B. 개념적 지식	C. 절차적 지식	D. 메타인지 지식
Aa. 전문 용어 Ab. 구체적 사실	Ba. 분류와 유목 Bb. 원리와 일반화 Bc. 이론, 모형, 구조	Ca. 교과에 특수한 기능 Cb. 교과에 특수한 기법 Cc. 적절한 절차의 사용 시점을 결정하기 위한 준거에 대한 지식	Da. 전략적 지식 Db. 인지과제에 대한 지식 Dc. 자기-지식

(2) 인지과정차원

인지적 영역의 인지과정차원은 여섯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기억하다’는 장기기억에서 특정 지식을 인출하는 것이다.

둘째, ‘이해하다’는 학습자가 새로운 지식의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다.

셋째, ‘적용하다’는 문제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다.

넷째, ‘분석하다’는 자료를 부분으로 나누고, 이들 간의 관련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다섯째, ‘평가하다’는 기준이나 준거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여섯째, ‘창안하다’는 부분들을 일관성 있게 결합시켜 새롭게 재조직하는 것이다.

<표Ⅲ-5> 인지과정차원 세부내용⁴⁷⁾

인지과정차원					
1. 기억하다	2. 이해하다	3. 적용하다	4. 분석하다	5. 평가하다	6. 창안하다
1.1 재인하기 1.2 회상하기	2.1 해석하기 2.2 예증하기 2.3 분류하기 2.4 요약하기 2.5 추론하기 2.6 비교하기 2.7 설명하기	3.1 실행하기 3.2 구형하기	4.1 구별하기 4.2 조직하기 4.3 귀속하기	5.1 점검하기 5.2 비판하기	6.1 생성하기 6.2 계획하기 6.3 산출하기

46) 위의 책, 표4.1 재구성.

47) 위의 책, 표5.1 재구성.

3) 악곡출처 분석도구

서양음악 문항 출제악곡의 출처분석은 2009 개정 중학교 음악교과서 18종,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16종을 중심으로 한다. 교과서는 한국검인정교과서 홈페이지⁴⁸⁾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 목록으로 작성하였으며 다음 <표Ⅲ-6>과 같다.

<표Ⅲ-6> 2009개정 중·고등학교 음악교과서 목록

번호	구분	도서명	출판사	대표 저자명
1	중학교	음악	교학사	강민선
2			(주)교학사	이홍수
3			(주)금성출판사	김용희
4			도서출판태성	주대창
5			동아출판(주)	최은식
6			(주)미래엔	장기범
7			(주)박영사	주광식
8			(주)비상교육	홍미희
9			(주)성안당	정옥희
10			세광음악출판사	허화병
11			(주)아침나라	박정자
12			(주)와이비엠	김미숙
13			(주)음악과생활	양종모
14			(주)중앙교육	경기도교육청
15			(주)지학사	정길선
16			(주)천재교과서	윤명원
17			(주)천재교육	민은기
18			현대음악	장보운
19	고등학교	음악과 생활	(주)교학사	이홍수
20			(주)금성출판사	김용희
21			(주)미래엔	장기범
22			(주)박영사	주광식

48) “한국검인정교과서”. (<http://www.ktbook.com/>). 2018. 04. 02.검색.

23			(주)아침나라	김광옥
24			(주)음악과생활	양종모
25			(주)중앙교육	경기도교육청
26			(주)지학사	황병숙
27			(주)천재교육	민은기
28			현대음악	허화병
29			(주)교학사	양은주
30		음악과 진로	(주)음악과생활	양종모
31			(주)천재교육	민은기
32		음악과 매체	(사)한국검인정(제주교육청)	김지현
33		음악사	(사)한국검인정(제주교육청)	조치노
34		음악이론	(사)한국검인정(제주교육청)	민경훈

교과서 외의 악곡분석은 서양음악 이론서를 참고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론서 목록은 다음 <표Ⅲ-7>과 같다.

<표Ⅲ-7> 서양음악 이론서 목록

번호	도서명	대표 저자명	출판사(연도)
1	그라우트의 서양음악사	Donald J. Grout	이앤비플러스(2009)
2	두길 서양음악사	홍정수	나남(2006)
3	새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 선곡집	허영한	심설당(2009)
4	서양음악사	홍세원	연세대학교대학출판문화원(2014)
5	서양음악사	민은기	음악세계(2014)

3.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음악과 임용시험 기출문항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분석도구를 개발 및 선정하고, 네 단계에 걸쳐 문항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도구 개발단계와 문항 분석방법은 다음 <표Ⅲ-8>, <표Ⅲ-9>와 같다.

<표Ⅲ-8> 분석도구 개발단계

단계	내용	비고	
1	'09-'18 (10년) 문항 수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료마당	
2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으로 1차 분류	통합문항 및 악곡문항은 따로 분류	
3	서양음악 문항 분석도구 개발	서양음악문항 1차 분류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8) 「중등 음악교과 임용 시험 평가영역 및 평가내용요소」 사용
		분류할 수 없는 문항 추출	
		비슷한 내용을 모아 분류	
		분류내용의 명칭을 임의로 지정	
		명칭과 세부내용 수정	교육부 '음악과 기본이수과목', 교과서, 이론서 참고
	수정내용 결합		
4	문항유형 분석도구 선정	블룸(Bloom)의 신교육목표분류학 중 앤더슨(Anderson)의 인지적영역 분류체계표 선정	
5	악곡출처 분석도구 선정	2009 개정 중·고등학교 음악교과서, 서양음악이론서	

<표Ⅲ-9> 문항 분석방법

단계	내용	세부내용	
1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 배점비율 분석	'09-'13 (5년)	1차 선다형과 2차 논술형으로 나누어 분석
		'14-'18 (5년)	전공A와 전공B로 나누어 분석
		'14년도를 기준으로 배점비율 비교	
		선다형과 서답형으로 나누어 배점비율 비교	
2	서양음악문항 세부분석	11개 평가영역의 배점비율 및 빈도수 분석	
		선다형과 서답형으로 나누어 출제빈도수 비교	
		세부영역별 출제경향 분석	
3	'블룸(Bloom)의 신교육목표분류학'으로 서양음악 문항유형 분석	연도별 출제빈도수 분석	
		선다형과 서답형으로 나누어 출제비율 비교	
		기입형과 서술·논술형으로 나누어 출제비율 비교	
4	악곡출처 분석	악곡의 제목과 작곡가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항 추출	
		악곡의 제목과 작곡가 찾기	
		시대별 배점비율 및 빈도수 분석	
		중·고등학교 교과서 34종에서 출처분석	
		교과서 외의 악곡은 서양음악 이론서를 참고하여 분석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음악과 임용시험 영역 간 배점비율 분석

1) 연도별 배점비율 분석

전공필기시험 문항은 크게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으로 나뉜다. 이에 2009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출제된 음악과 전공필기시험 문항을 음악교육학, 국악, 서양음악의 세 영역으로 분류하여 배점비율을 산출하였다. 통합문항의 경우 점수는 반으로 배분하였다. 통합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음악교육학자 엘리엇(D. Elliott)은 '맥락(context)'의 의미와 관련하여 음악하기(musicing)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설명하고, 학교 음악교육에 이 관점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술하시오. 또한 이 관점에서 (가)~(다) 악곡의 배경을 각각 설명하시오. 【25점】

(가) Musical score for a short melody in 4/4 time, featuring a sequence of notes and rests.

(나) Musical score for a melody in 18/8 time, featuring a sequence of notes and rests.

(다) Musical score for a piano accompaniment, featuring multiple staves for different instruments: (Va.) Violin, (Trp.) Trumpet, (Cl.) Clarinet, (Cb.) Cello, and (Bsn.) Bassoon. The score includes dynamic markings such as *ff* and *p*.

[그림 IV-1] 2012년도 2차 시험 1번 문항

위의 [그림 IV-1]은 음악교육학과 서양음악이 결합된 통합문항이며, 배점은 25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문항의 배점을 반으로 나누어, 해당 문제의 서양음악 배점은 12.5점으로 계산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IV-1>과 같다.

<표 IV-1> 2012년도 2차 1번 문항 분류예시

연도	문항번호	분류	내용	배점
2012	2차_1	음악교육학	음악교육학자 엘리엇(D.Elliott)은 ‘맥락(context)’의 의미와 관련하여 음악하기(musicing)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설명하고, 학교 음악교육에 이 관점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술하시오.	12.5
		서양음악	(가)-(다) 악곡의 배경을 각각 설명하시오.	12.5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전공필기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졌으며,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전공A와 전공B로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차시별로 배점비율을 분석하였다.

<표 IV-2> 차시별 문항유형

연도	차시	시험 과목	문항 유형	문항수	문항당 배점	총점
'09 - '13	1차	전공	선다형	40문항	1.5, 2, 2.5점	80점
	2차	전공	논술형(I)	2문항	20-30점	50점
논술형(II)			2문항	20-30점	50점	
'14 - '18	1차	전공A	기입형	8-15문항	2점	40점
			서술형	4-6문항	3-5점	
		전공B	서술형 및 논술형	2-7문항	4, 5점	40점
				1-2문항	5-10점	

(1) 2009년도 영역 간 배점비율

2009년도에는 평균적으로 음악교육학(44.7%)의 배점비율이 가장 높았고, 서양음악(26.9%)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1차에서는 서양음악(41.8%), 국악(38.8%), 음악교육학(19.4%) 순이었으며, 2차에서는 음악교육학(65%), 국악(20%), 서양음악(15%) 순으로 높았다.

<표IV-3> 2009년도 영역 간 배점비율

구분	평가 영역	2009		합계(%)
		1차 배점(%)	2차 배점(%)	
교과교육학	음악교육학	15.5	65	80.5
		(19.4)	(65)	(44.7)
교과내용학	국악	31	20	51
		(38.8)	(20)	(28.3)
	서양음악	33.5	15	48.5
		(41.8)	(15)	(26.9)
총계(%)		80(100)	100(100)	180(100)

(2) 2010년도 영역 간 배점비율

2010년도에는 평균적으로 서양음악(38.6%)의 배점비율이 가장 높았고, 국악(27.2%)이 가장 낮았다. 1차에서는 서양음악(40%), 음악교육학(30%)과 국악(30%) 순이었으며, 2차에서는 음악교육학(37.5%)과 서양음악(37.5%), 국악(25%) 순이었다.

<표IV-4> 2010년도 영역 간 배점비율

구분	평가 영역	2010		합계(%)
		1차 배점(%)	2차 배점(%)	
교과교육학	음악교육학	24	37.5	61.5
		(30)	(37.5)	(34.2)
교과내용학	국악	24	25	49
		(30)	(25)	(27.2)
	서양음악	32	37.5	69.5
		(40)	(37.5)	(38.6)
총계(%)		80(100)	100(100)	180(100)

(3) 2011년도 영역 간 배점비율

2011년도에는 평균적으로 음악교육학(35.6%)의 배점비율이 가장 높았고, 서양음악(30.8%)이 가장 낮았다. 1차에서는 서양음악(38.1%), 국악(31.9%), 음악교육학(30%) 순이었으며, 2차에서는 음악교육학(40%), 국악(35%), 서양음악(25%) 순으로 높았다.

<표IV-5> 2011년도 영역 간 배점비율

구분	평가 영역	2011		합계(%)
		1차 배점(%)	2차 배점(%)	
교과교육학	음악교육학	24 (30)	40 (40)	64 (35.6)
교과내용학	국악	25.5 (31.9)	35 (35)	60.5 (33.6)
	서양음악	30.5 (38.1)	25 (25)	55.5 (30.8)
총계(%)		80(100)	100(100)	180(100)

(4) 2012년도 영역 간 배점비율

2012년도에는 평균적으로 서양음악(37.8%)의 배점비율이 가장 높았고, 음악교육학(26.4%)이 가장 낮았다. 1차에서는 서양음악(38.1%), 국악(36.9%), 음악교육학(25%) 순이었고. 2차에서는 서양음악(37.5%), 국악(35%), 음악교육학(27.5%) 순으로 높았다.

<표IV-6> 2012년도 영역 간 배점비율

구분	평가 영역	2012		합계(%)
		1차 배점(%)	2차 배점(%)	
교과교육학	음악교육학	20 (25)	27.5 (27.5)	47.5 (26.4)
교과내용학	국악	29.5 (36.9)	35 (35)	64.5 (35.8)
	서양음악	30.5 (38.1)	37.5 (37.5)	68 (37.8)
총계(%)		80(100)	100(100)	180(100)

(5) 2013년도 영역 간 배점비율

2013년도에는 평균적으로 국악(37.8%)의 배점비율이 가장 높았고, 음악교육학(29.7%)이 가장 낮았다. 1차에서는 서양음악(35.6%), 국악(35%), 음악교육학(29.4%) 순이었고, 2차에서는 국악(40%), 음악교육학(30%)과 서양음악(30%) 순이었다.

<표IV-7> 2013년도 영역 간 배점비율

구분	평가 영역	2013		합계(%)
		1차 배점(%)	2차 배점(%)	
교과교육학	음악교육학	23.5 (29.4)	30 (30)	53.5 (29.7)
		28 (35)	40 (40)	68 (37.8)
교과내용학	국악	28.5 (35.6)	30 (30)	58.5 (32.5)
	서양음악	28.5 (35.6)	30 (30)	58.5 (32.5)
총계(%)		80(100)	100(100)	180(100)

(6) 2014년도 영역 간 배점비율

2014년도부터는 2차에 걸쳐 실시되던 시험이 1차로 통합되었고 전공A와 전공B로 나뉘었다. 해당년도에는 평균적으로 국악(35.6%)의 배점비율이 가장 높았고, 음악교육학(30.6%)이 가장 낮았다. 전공A에서는 서양음악(40%), 국악(31%), 음악교육학(29%) 순이었고, 전공B에서는 국악(43.3%), 음악교육학(33.4%), 서양음악(23.3%) 순으로 높았다.

<표IV-8> 2014년도 영역 간 배점비율

구분	평가 영역	2014		합계(%)
		전공A 배점(%)	전공B 배점(%)	
교과교육학	음악교육학	14.5 (29)	10 (33.4)	24.5 (30.6)
		15.5 (31)	13 (43.3)	28.5 (35.6)
교과내용학	국악	20 (40)	7 (23.3)	27 (33.8)
	서양음악	20 (40)	7 (23.3)	27 (33.8)
총계(%)		50(100)	30(100)	80(100)

(7) 2015년도 영역 간 배점비율

2015년도에는 평균적으로 음악교육학(36.3%)의 배점비율이 가장 높았고, 서양음악(28.7%)이 가장 낮았다. 전공A에서는 음악교육학(35%), 국악(32.5%)과 서양음악(32.5%) 순이었으며, 전공B에서는 음악교육학(37.5%)과 국악(37.5%), 서양음악(25%) 순이었다.

<표IV-9> 2015년도 영역 간 배점비율

구분	평가 영역	2015		합계(%)
		전공A 배점(%)	전공B 배점(%)	
교과교육학	음악교육학	14 (35)	15 (37.5)	29 (36.3)
교과내용학	국악	13 (32.5)	15 (37.5)	28 (35)
	서양음악	13 (32.5)	10 (25)	23 (28.7)
총계(%)		40(100)	40(100)	80(100)

(8) 2016년도 평가영역별 출제비중

2016년도에는 평균적으로 국악(35%)과 서양음악(35%)이 같은 배점비율로 높았으며, 음악교육학(30%)이 가장 낮았다. 전공A에서는 국악(50%), 서양음악(40%), 음악교육학(10%) 순이었으며, 전공B에서는 음악교육학(50%), 서양음악(30%), 국악(20%) 순으로 높았다.

<표IV-10> 2016년도 영역 간 배점비율

구분	평가 영역	2016		합계(%)
		전공A 배점(%)	전공B 배점(%)	
교과교육학	음악교육학	4 (10)	20 (50)	24 (30)
교과내용학	국악	20 (50)	8 (20)	28 (35)
	서양음악	16 (40)	12 (30)	28 (35)
총계(%)		40(100)	40(100)	80(100)

(9) 2017년도 영역 간 배점비율

2017년도에는 평균적으로 국악(38.8%)의 배점비율이 가장 높았고, 음악교육학(27.5%)이 가장 낮았다. 전공A에서는 서양음악(45%), 국악(35%), 음악교육학(20%) 순이었으며, 전공B에서는 국악(42.5%), 음악교육학(35%), 서양음악(22.5%) 순으로 높았다.

<표IV-11> 2017년도 영역 간 배점비율

구분	평가 영역	2017		합계(%)
		전공A 배점(%)	전공B 배점(%)	
교과교육학	음악교육학	8 (20)	14 (35)	22 (27.5)
교과내용학	국악	14 (35)	17 (42.5)	31 (38.8)
	서양음악	18 (45)	9 (22.5)	27 (33.7)
총계(%)		40(100)	40(100)	80(100)

(10) 2018년도 영역 간 배점비율

2018년도에는 평균적으로 국악(36.25%)과 서양음악(36.25%)이 같은 배점비율로 높았으며, 음악교육학(27.5%)이 가장 낮았다. 전공A에서는 국악(40%)과 서양음악(40%), 음악교육학(20%) 순이었으며, 전공B에서는 음악교육학(35%), 국악(32.5%)과 서양음악(32.5%) 순이었다.

<표IV-12> 2018년도 영역 간 배점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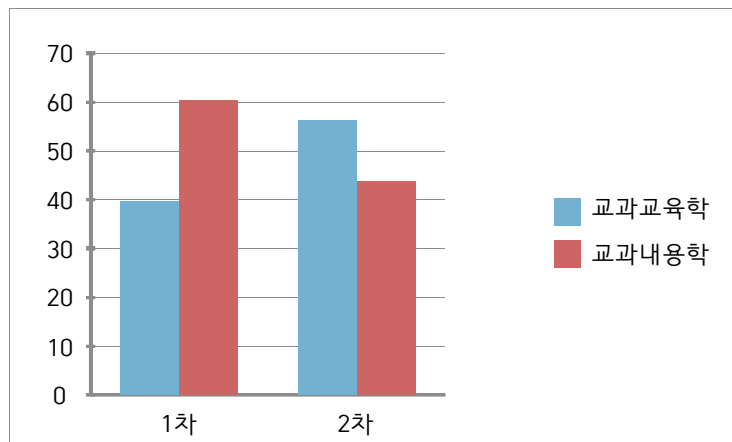
구분	평가 영역	2018		합계(%)
		전공A 배점(%)	전공B 배점(%)	
교과교육학	음악교육학	8 (20)	14 (35)	22 (27.5)
교과내용학	국악	16 (40)	13 (32.5)	29 (36.25)
	서양음악	16 (40)	13 (32.5)	29 (36.25)
총계(%)		40(100)	40(100)	80(100)

(11) 2009-2018년도 영역 간 배점비율 종합

차시별 배점비율을 분석한 결과, 1차와 전공A에서는 교과내용학이, 2차와 전공B에서는 교과교육학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평균적으로는 국악(34.6%)이 가장 높고 음악교육학(31.9%)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 2009-2018년도 영역 간 배점비율

구분	평가 영역	2009-2018		합계(%)
		1차 및 전공A 배점(%)	2차 및 전공B 배점(%)	
교과교육학	음악교육학	247.8 (24.8)	390.9 (39.1)	638.7 (31.9)
교과내용학	국악	361.1 (36.1)	330.8 (33.1)	691.9 (34.6)
	서양음악	391.1 (39.1)	278.3 (27.8)	669.4 (33.5)
총계(%)		1000(100)	1000(100)	200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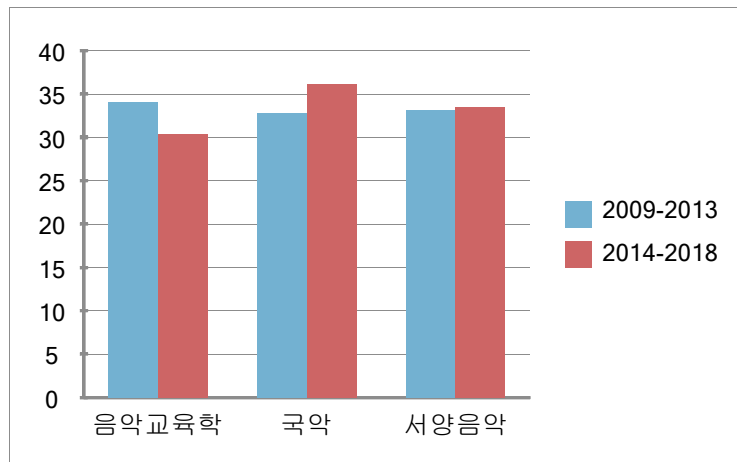
[그림 IV-2] 2009-2018년도 차시별 영역 간 배점비율

2) 2014년도 기준 배점비율 비교

중등 임용시험 전공필기문항은 2009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5년간 1차 선다형, 2차 논술형 문항으로 출제되었으나, 2014년도에 주관식(기입형, 서술 및 논술형)으로 문항유형이 변경되어 2018년도까지 5년간 유지되고 있다. 이에 2014년도를 기준으로 배점비율을 비교하였고, 그 결과 음악교육학의 비율은 낮아진 반면 국악의 비율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는 다음 <표Ⅳ-14>과 같다.

<표Ⅳ-14> 2014년도 기준 배점비율 비교

과목	평가 영역	배점비율(%)	
		'09-'13	'14-'18
교과교육학	음악교육학	34.1	30.4 (-3.7 ↓)
교과내용학	국악	32.8	36.1 (+3.3 ↑)
	서양음악	33.1	33.5 (+0.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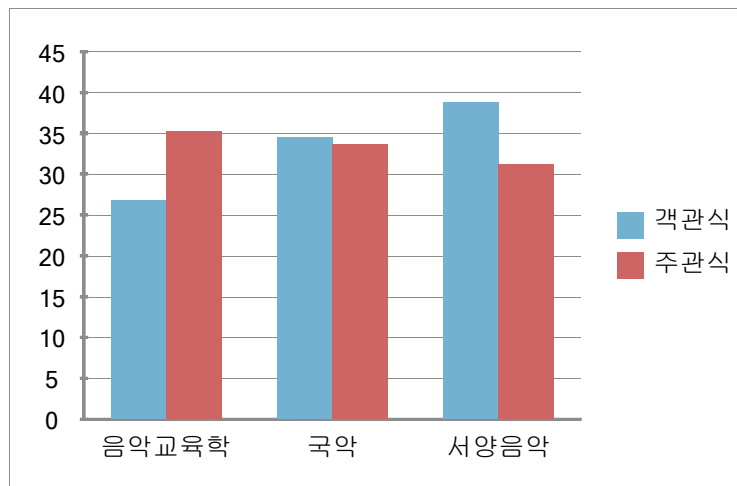
[그림Ⅳ-3] 2014년도 기준 배점비율 비교

3) 문항유형별(객관식, 주관식) 배점비율 비교

2009년도에서 2013년도까지의 2차 논술형 문항을 주관식에 포함시키고, 객관식과 주관식의 배점비율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객관식에서는 서양음악(38.7%)의 배점비율이 가장 높았고, 주관식에서는 음악교육학(35.2%)의 배점비율이 가장 높았다. 분석결과는 다음 <표Ⅳ-15>와 같다.

<표Ⅳ-15> 문항유형별(객관식, 주관식) 배점비율 비교

과목	평가 영역	배점비율(%)	
		객관식	주관식
교과교육학	음악교육학	26.8	35.2 (+8.4↑)
교과내용학	국악	34.5	33.6 (-0.9↓)
	서양음악	38.7	31.2 (-7.5↓)



[그림Ⅳ-4] 문항유형별(객관식, 주관식) 배점비율 비교

2. 서양음악 문항내용 분석

1) 세부영역별 배점비율 분석

서양음악 세부영역은 본 연구의 분석도구에서 제시한 11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두 개 이상의 평가영역이 결합된 통합문항의 경우, 배점을 평등하게 배분시켰다. 통합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12. 김 교사는 다음 악보로 기악 합주 수업을 하고자 한다. [A]에서 [B]로 진행되는 부분에서 교사가 지도해야 할 내용은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작성 방법>

- 악보에 제시된 빠르기말과 나타냄말의 의미를 포함하여 지도할 내용을 각각 서술할 것.
- 악보에 제시된 현악 주법(마디 103-104)과 관련하여 지도할 내용을 서술할 것.
- 첼로 파트의 비화성음(마디 104-110)의 명칭과 화성적 기능을 제시할 것.

[그림 IV-5] 2017년도 전공A 12번 문항

위 문항의 배점은 4점이며, 음악교육론과 서양음악이 결합된 통합문항이다. 이에 따라, 먼저 음악교육론 2점과 서양음악 2점으로 배분하였다.

서양음악 내용만을 추출하여 살펴보면, 악곡을 세 가지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분석기준은 ‘빠르기말과 나타냄말의 의미’이며 ‘음악통론’에 속한다. 두 번째 분석기준은 ‘현악주법’이며 ‘악기론’에 속한다. 마지막 세 번째 분석기준은 ‘비화성음과 화성적 기능’이며 ‘화성법’에 속한다. 이를 종합하면, 악곡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문제이므로 먼저 ‘음악분석’에 분류되며, 앞서 제시한 ‘음악통론’, ‘악기론’, ‘화성법’에도 중복 분류된다. 즉, 서양음악 문항 내에서도 4가지 평가영역에 해당하므로, 각각 0.5점의 배점을 갖는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IV-16>와 같다.

<표IV-16> 2017년도 전공A 12번 문항 분류예시

연도	문항번호	분류		내용	배점
2017	A12	서양음악	음악분석	음악의 총체적 분석	0.5
			악기론	악보에 제시된 현악 주법	0.5
			음악통론	악보에 제시된 빠르기말과 나타냄말의 의미	0.5
			화성법	첼로 파트의 비화성음의 명칭과 화성적 기능	0.5
			음악교육론	지도할 내용을 서술	2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도별 서양음악 세부영역의 배점비율을 산출한 결과, ‘서양음악사(51.8%)’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반면 ‘화성법(18.1%)’ 영역은 매년 출제된 것에 비해 비교적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가장 낮은 배점비율을 보인 영역은 ‘연주형태(0.7%)’와 ‘작곡(0.8%)’이었다. 서양음악 문항의 세부영역별 배점비율은 다음 <표IV-17>과 같다.

<표Ⅳ-17> 서양음악 세부영역별 배점비율

평가영역	연도별 배점(%)										합계 (%)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대위법	4.5 (9.4)	2 (3)	2 (3.6)	2 (3.1)	2 (3.4)	2 (7.4)					14.5 (3.4)
반주	3 (6.3)	2 (3)	3.5 (6.4)	3 (4.7)	2 (3.4)					1 (3.4)	14.5 (3.4)
작곡		1.25 (1.9)		1.25 (2)	1 (1.7)						3.5 (0.8)
지휘	1.5 (3.1)	3 (4.4)	2 (3.6)	2.5 (3.9)	1.25 (2.1)					4 (13.8)	14.25 (3.3)
서양 음악사	9.7 (20.3)	33 (48.9)	39.285 (71.4)	46.34 (72.6)	39.5 (67.5)	13 (48.1)	5 (21.7)	10 (35.7)	11 (40.7)	14 (48.3)	220.825 (51.8)
악기론	1.5 (3.1)		1.535 (2.8)	1 (1.6)	2 (3.4)	2 (7.4)		1 (3.6)	4.5 (16.7)		13.535 (3.2)
연주형태		2 (3)								1 (3.4)	3 (0.7)
음악분석	5 (10.5)	2.5 (3.7)	0.29 (0.5)				1.25 (5.4)	1 (3.6)	0.5 (1.9)	1 (3.4)	11.54 (2.7)
음악통론		7.5 (11.1)	0.57 (1)			3 (11.1)		1 (3.6)	4.5 (16.7)		16.57 (3.9)
음악 형식론	11 (23.1)	6.5 (9.6)	0.285 (0.5)	2 (3.1)	4.5 (7.7)		4 (17.4)	6 (21.4)	2 (7.4)	1 (3.4)	37.285 (8.7)
화성법	11.5 (24.1)	7.75 (11.5)	5.535 (10.1)	5.75 (9)	6.25 (10.7)	7 (25.9)	12.75 (55.4)	9 (32.1)	4.5 (16.7)	7 (24.1)	77.035 (18.1)
총계(%)	47.7 (100)	67.5 (100)	55.5 (100)	63.84 (100)	58.5 (100)	27 (100)	23 (100)	28 (100)	27 (100)	29 (100)	427.04 (100)

2) 세부영역별 문항 수 분석

연도별 서양음악 세부영역별 문항 수를 분석한 결과, 전 영역에서 고른 출제경향을 보였다. 가장 많이 출제된 영역은 ‘서양음악사’와 ‘화성법’ 영역이었으며, 매년 출제되는 세부평가영역은 ‘음악형식론-악곡형식’과 ‘화성법-화음’이었다. 또한 ‘서양음악사’영역에서는 ‘근·현대’ 문항이 2014년도를 제외하고 모든 연도에 출제되었고, ‘고대·중세’와 ‘낭만’ 문항은 2014년도까지 연속적으로 나오다가 이후 출제빈도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외 출제빈도가 낮은 세부영역은 ‘대위법-16세기’와 ‘반주-기타(guitar)’ 영역이다. 서양음악 세부영역별 출제빈도수는 다음 <표Ⅳ-18>과 같다.

<표 IV-18> 서양음악 세부영역별 출제빈도수

평가영역	세부영역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합계(%)	
대위법	16세기	1										1	
	18세기	1	1	1	1	1	1					6	
반주	피아노	1	1	2	1	1					1	7	
	기타	1			1							2	
작곡	선율창작		1		1	1						3	
지휘	박자짓기	1	1	1	1						1	5	
	총보독해력		1		1	1						3	
서양 음악사	서 구 권	고대·중세	1	1		1	1	1		1	1		7
		르네상스		1	2			1				1	5
		바로크				2	1	1				1	5
		고전			1		2					1	4
		낭만	1	1	2	3	1	1		1			10
		근·현대	2	1	4	3	2		1	1	1	1	16
		비서구권	1	1	1	2						1	
악기론	악기지식			2	1		1		1	2		7	
	이조악기	1				1						2	
연주형태	연주형태		1								1	2	
음악분석	총체적분석	1	1	1				1	1	1	1	7	
음악통론	음악통론		1	1			2		1	2		7	
음악 형식론	악곡형식	3	3	1	1	2		2	2	1		15	
	호모/폴리포니	1				1			1		1	4	
화성법	조성	1		1				1	1	1		5	
	화음	2	2	4	1	2	2	4	1	1	3	22	
	종지법		1	1					1			3	
	비화성음	1	2	1	2	1			1	2		10	
	전조	1	1	1	2	2	1	1				9	
총계(%)												173(100)	

(1) 문항유형별(객관식, 주관식) 비교

문항유형을 객관식과 주관식(기입형, 서술형, 논술형)으로 나누어 출제비율을 비교한 결과, 객관식과 주관식 모두 ‘서양음악사’와 화성법’의 출제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유형별로 살펴보면, 객관식에서는 ‘반주(7.8%)’, ‘지휘(6.8%)’, ‘대위법(5.8%)’이 주관식보다 많이 출제되었고, 주관식에서는 ‘음악형식론(12.7%)’, ‘음악분석(8.5%)’, ‘음악통론(8.5%)’이 객관식보다 많이 출제되었다.

<표 IV-19> 문항유형별(객관식, 주관식) 서양음악 세부영역 출제비율 비교

평가영역	세부영역	객관식		주관식	
		출제수	비율(%)	출제수	비율(%)
대위법	16세기	1	5.8		1.4
	18세기	5		1	(-4.4 ↓)
반주	피아노	6	7.8	1	1.4
	기타	2			(-6.4 ↓)
작곡	선율창작	3	2.9		0 (-2.9 ↓)
지휘	박자짓기	4	6.8	1	1.4
	총보독해력	3			(-5.4 ↓)
서양음악사	서구권	고대·중세	2	5	29.6 (-2.4 ↓)
		르네상스	3	2	
		바로크	4	2	
		고전	3	1	
		낭만	8	2	
		근·현대	9	7	
	비서구권	4	2		
	악기론	악기지식	3	4.9	
이조악기		2			(+0.7 ↑)
연주형태	연주형태	1	1	1	1.4 (+0.4 ↑)
음악분석	총체적분석	1	1	6	8.5 (+7.5 ↑)
음악통론	음악통론	1	1	6	8.5 (+7.5 ↑)
음악형식론	악곡형식	8	9.7	7	12.7
	호모/폴리포니	2		2	(+3 ↑)
화성법	조성	1	27.2	4	29.6 (+2.4 ↑)
	화음	11		11	
	중지법	2		1	
	비화성음	7		3	
	전조	7		2	

3) 세부영역별 출제경향 분석⁴⁹⁾

(1) 대위법

‘대위법’은 2개의 평가영역과 2개의 평가내용요소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도구에서 제시한 11개의 평가영역 중 대위법은 3.4% 비중으로 출제되었으며, 그 중에서 ‘16세기 대위법(0.6%)’은 2009년도에 1회 출제된 뒤 2018년도까지 한 번도 출제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세기 대위법(2.8%)’은 2014년도까지 매년 1회씩 출제되었으나, 2015년도 이후 4년간 출제되지 않았다.

<표 IV-20> 대위법의 10년간 출제경향

평가 영역	평가내용요소	연도별 문항번호										배점 (%)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6세기	1:1, 1:2, 1:4 방식에 의한 대위 기법의 이해 및 적용	17										2.5 (0.6)
18세기	모방기법에 의한 인벤션, 푸가의 분석	19	15	16	14	16	A8					12 (2.8)
계(%)											14.5(3.4)	

(2) 반주

‘반주’는 2개의 평가영역과 2개의 평가내용요소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도구에서 제시한 11개의 평가영역 중 3.4%의 비중을 차지하며, 세부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피아노반주법(2.6%)’은 8회, ‘기타반주법(0.8%)’은 2회 출제되었다. ‘기타반주법’은 2012년도 이후 6년간 한 번도 출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9) 연도별 문항번호 표기법: 2009-2013년도 1차 문항은 숫자로만 제시하였고, 2차 문항은 ‘2_1’와 같은 형태로 제시하였다. 또한 2014-2018년도 전공A 문항은 ‘A1, 서술1’로 제시하였으며, 전공B 문항은 ‘B1’과 같은 형태로 제시하였다.

<표Ⅳ-21> 반주의 10년간 출제경향

평가 영역	평가내용요소	연도별 문항번호										배점 (%)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피아노	리듬형태에 따른 반주법, 반주형태, 페달 사용법 등	37	21	22, 26	28	13						A4	11 (2.6)
기타	타브악보 독해력, 기타운지법 등	6			13								3.5 (0.8)
계(%)												14.5(3.4)	

(3) 작곡

‘작곡’은 1개의 평가영역과 1개의 평가내용요소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도구에서 제시한 11개의 평가영역 중 ‘연주형태(0.7%)’ 다음으로 가장 낮은 비율인 0.8%의 비중을 차지하며, 2013년도에 마지막으로 출제된 뒤 5년간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도부터 서답형 문항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관적인 채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을 제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Ⅳ-22> 작곡의 10년간 출제경향

평가 영역	평가내용요소	연도별 문항번호										배점 (%)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선율 창작	악구 및 악절 형식으로 된 선율 만들기		22		18	19							3.5 (0.8)
계(%)												3.5(0.8)	

(4) 지휘

‘지휘’는 2개의 평가영역과 2개의 평가내용요소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도구에서 제시한 11개의 평가영역 중 3.3%의 출제비중을 차지한다. ‘박자 짓기(2.5%)’는 5회 출제되었으며, ‘충보독해력(0.9%)’은 3회 출제되었다. 지휘영역은 1차 전공필기시험이 선다형으로 출제되던 2009년도부터 2013

년도까지는 매년 출제되었으나, 2014년도부터는 출제빈도수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표IV-23> 지휘의 10년간 출제경향

평가 영역	평가내용요소	연도별 문항번호										배점 (%)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박자 짓기	빠르기와 다양한 다이내믹스의 표현, 시작, 맺음, 분할법 등	36	17	15	17						B3	10.5 (2.5)
총보 독해력	총보 독해력		26		19	26						3.75 (0.9)
계(%)											14.25(3.3)	

(5) 서양음악사

‘서양음악사’는 2개의 평가영역과 7개의 평가내용요소로 구성된다. 본 연구도구에서 제시한 11개의 세부영역 중 가장 높은 51.8%의 출제비중을 차지한다. ‘근·현대(21.2%)’ 문항이 2014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출제되었으며, 그 뒤로 ‘고대·중세(15.1%)’와 ‘낭만(4.5%)’ 문항이 꾸준한 출제를 보였다. ‘비서구권(3.3%)’ 문항은 2014년도 이전에는 4년 연속 출제되다가 시험체제가 바뀐 이후 2017년도에 1회 출제되었다. 서양음악사 영역 중 가장 낮은 출제비중을 보이는 세부영역은 ‘고전(1.8%)’ 영역이다.

<표IV-24> 서양음악사의 10년간 출제경향

평가 영역	평가내용요소	연도별 문항번호										배점 (%)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서구권	고대·중세 (-1450)	24	2,3		2,2	21	B2		A7	B6		64.5 (15.1)
	르네상스 (1450-1600)		13	17, 19			B1				A10	12.5 (2.9)
	바로크 (1600-1750)	27			12, 22	24	서술5				A11	11.9 (2.8)
	고전 (1750-1820)			23		22, 23					A9	7.9 (1.8)

	낭만 (1820-1900)	26	27	18, 25	12, 16, 20	22	A9		A11			19.34 (4.5)
	근·현대 (1900-)	20, 26	19	19, 20, 21, 2_1	20, 26, 2_1	25, 2_3		B1	B4	A10	B7	90.515 (21.2)
비서구권	비서구권 음악, 대중음악 등	9	24	28	24 2_1					A6		14.17 (3.3)
계(%)												220.825 (51.8)

시대별 출제된 작곡가를 분석하였을 때, 가장 많이 출제된 작곡가는 ‘슈베르트’와 ‘원베르크’이며 각각 3회씩 출제되었다. 시대별 작곡가와 출제빈도수는 다음 <표Ⅳ-25>와 같다.

<표Ⅳ-25> 서양음악사 시대별 출제된 작곡가

시대		작곡가 (출제빈도수)
고대·중세 (-1450)		레오닝, 마쇼
르네상스 (1450-1600)		조스캥(2), 세르미지, 팔레스트리나(2)
바로크 (1600-1750)		렐리(2), 몬테베르디, 바흐(2), 카리시미, 카치니(2), 퍼셀, 헨델(2)
고전 (1750-1820)		모차르트, 베토벤
낭만 (1820-1900)		그리그, 리스트(2), 멘델스존(2), 무소르그스키, 바그너(2), 베르디, 베를리오즈(2), 베버, 보로딘, 브람스, 비제(2), 슈베르트(3), 차이코프스키, 푸치니
근·현대 (1900-)	전기	거쉰, 드뷔시(2), 레스피기, 미요(2), 바르톡, 베르크, 원베르크(3), 플랑크(2), 헨데미트
	후기 (1945-)	라이히, 리게티, 메시앙(2), 바레즈, 불레즈(2), 슈톡하우젠, 존케이지

(6) 악기론

‘악기론’은 2개의 평가영역과 2개의 평가내용요소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도구에서 제시한 11개 영역 중 3.2%의 비중으로 출제되었다. ‘악기지식(2.3%)’은 약 2년마다 한 번씩 출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조악기

(0.8%)’ 문항은 2013년도 이후 한 번도 출제되지 않고 있다.

<표Ⅳ-26> 악기론의 10년간 출제경향

평가 영역	평가내용요소	연도별 문항번호										배점 (%)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악기 지식	악기분류, 악기변천, 음역, 주법 등			21, 24	19		A10		A14	A9, A12		10.035 (2.3)
이조 악기	이조악기의 이조	18				28						3.5 (0.8)
계(%)											13.535(3.2)	

(7) 연주형태

‘연주형태’는 1개의 평가영역과 1개의 평가내용요소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도구에서 제시한 11개의 평가영역 중 가장 낮은 0.7%의 출제비중을 차지한다. 2010년도 이후 7년간 출제되지 않다가 2018년도에 1회 출제되었다.

<표Ⅳ-27> 연주형태의 10년간 출제경향

평가 영역	평가내용요소	연도별 문항번호										배점 (%)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연주 형태	독주곡, 독창곡, 실내악곡, 관현악곡 등		20								A11	3 (0.7)
계(%)											3(0.7)	

(8) 음악분석

‘음악분석’은 1개의 평가영역과 1개의 ‘평가내용요소’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도구에서 제시한 11개의 영역 중 2.7%의 비중으로 출제되었다. 2011년도 이후 3년간 출제되지 않다가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4년간 연속

으로 출제되었다.

<표 IV-28> 음악분석의 10년간 출제경향

평가 영역	평가내용요소	연도별 문항번호										배점 (%)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총체적 분석	박자, 리듬, 음계, 형식, 작곡기법 등 음악 내적 요소 중 3개 이상의 총체적 분석	2_3	2_1	21				사술3	A14	A12	A11	11.54 (2.7)
계(%)											11.54(2.7)	

(9) 음악통론

‘음악통론’은 1개의 평가영역과 1개의 평가내용요소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도구에서 제시한 11개의 평가영역 중 3.9%의 출제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음악분석’ 영역과 함께 출제되는 경향을 보인다.

<표 IV-29> 음악통론의 10년간 출제경향

평가 영역	평가내용요소	연도별 문항번호										배점 (%)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음악 통론	보표·음자리표, 음이름, 음표·쉼표, 조성, 음계, 마디, 박자, 빠르기말, 셈여림말, 나타냄말, 줄임표, 꾸밈음 등		2_1	21			A3, A7		A14	A12, A13		16.57 (3.9)
계(%)											16.57(3.9)	

(10) 음악형식론

‘음악형식론’은 2개의 평가영역과 2개의 평가내용요소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도구에서 제시한 11개의 평가영역 중 8.7%의 비중으로 출제되었다. ‘악곡형식(7.1%)’ 문항이 매년 꾸준히 출제되었으며, 특히 ‘음악분석’ 영역과 함께 출제되는 경향을 보였다.

<표Ⅳ-30> 음악형식론의 10년간 출제경향

평가 영역	평가내용요소	연도별 문항번호										배점 (%)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악곡형식	동기, 악구, 악절 2부분형식, 3부분형식, 춤곡, 론도, 변주곡, 소나타형식 등	22, 38	16, 23, 2_1	21	23	17, 19		A3, A6	A9	B2	B2	30.285 (7.1)
호모포니와 폴리포니	양식의 특징과 작품에서의 쓰임새	21				18			B2		A11	7 (1.6)
계(%)											37.285(8.7)	

(11) 화성법

‘화성법’은 4개의 평가영역과 4개의 평가내용요소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 도구에서 제시한 11개의 평가영역 중 ‘서양음악사’ 다음으로 높은 18.1%의 출제비율을 차지한다. 모든 영역에서 고른 출제를 보이나, 특히 ‘화음(8.5%)’ 문항이 매년 출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조(3.4%)’ 문항은 2015년 이후 3년간 출제되지 않았다.

<표Ⅳ-31> 화성법의 10년간 출제경향

평가 영역	평가내용요소	연도별 문항번호										배점 (%)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조성	조성분석	3_1		21				서술3	A9	B2		10.535 (2.5)
화음	음정, 3화음, 7화음, 반음계적 화음 등	15, 37	22, 28	13, 14, 22, 24	18	14, 26	A6, A11	A4, A5, 서술3, B2	A14	A4	A3, A4, B2	36.16 (8.5)
중지법	정격중지, 반중지, 허위중지 및 변경중지의 분석		22	13					B1			4.92 (1.2)
비화성음	화음 밖의 음의 분석 및 명칭	14	22, 25	13	15, 18	26			A3	A4, A12		11.3575 (2.7)
전조	전조의 이해 및 악곡에서의 전조 과정 분석	16	14	13	11, 18	15, 19	서술3	서술3				14.5625 (3.4)
계(%)											77.035(18.1)	

화성법 영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화음’과 ‘비화성음’의 출제경향을 분석한 결과, 각 세부영역에서 고른 출제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표 IV-32> 비화성음, 화음의 세부영역 출제경향

평가영역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비 화 성 음	경과음 (P.T)	✓			✓				✓		
	계류음 (Sus.)	✓	✓						✓		
	변이음 (C.T)				✓						
	보조음 (N.T)	✓	✓		✓						
	선행음 (Ant.)		✓		✓						
	이탈음 (E.T)		✓		✓						
	전타음 (App.)		✓	✓	✓				✓	✓	
	지속음 (P.P)	✓	✓			✓				✓	
화 음	3화음	✓	✓			✓		✓			✓
	7화음	✓	✓	✓	✓	✓	✓	✓		✓	✓
	반음계적 화음	✓		✓	✓	✓	✓		✓		✓

3. 서양음악 문항유형 분석

1) 연도별 블룸의 문항유형 분석

중등 임용 전공필기시험은 임용후보자의 인지적 능력을 평가한다. 이에 따라 앤더슨 등이 개정한 ‘블룸의 신(新)교육목표분류학’의 ‘인지적 영역 분류체계표’를 분석도구로 삼아 문항유형을 분석하였다. 하나의 문항에서 두 가지 이상의 ‘지식’이나 ‘인지과정’이 포함된 문항은 각 영역에 중복시켰다. 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3. 다음은 종지와 조성과의 관련성을 보여 주는 악보이다. ㉠과 ㉡ 부분에 해당하는 종지의 종류를 쓰시오. 그리고 이 악보에서 나타나는 전조(조바꿈)에 대하여 전조의 방법, 화음 기능의 변화, 조성을 포함하여 서술하시오. [5점]



[그림 IV-6] 2015년도 서술형 3번 문항

위의 문항은 악보를 제시하고 두 가지 답변을 요구하였는데, 첫 번째는 종지의 종류를 쓰는 것이다. ‘종지의 명칭’은 ‘용어’이므로 ‘사실적 지식’으로 분류하였으며, ‘명칭을 기억하여 쓰는 것’이므로 인지과정에서는 ‘기억하다’로 분류시켰다. 두 번째는 ‘종지, 전조, 화음, 조성을 분석’하라는 음악분석에 대한 내용이므로 ‘절차적 지식-분석하다’로 분류하였다. 즉, 문

항은 하나이나 두 가지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각 영역에 중복 분류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IV-33>와 같다.

<표IV-33> 2015년도 서술형 3번 문항 분류예시

연도	문항번호	분류		내용
		지식	인지과정	
2015	서술_3	A.사실적 지식	1.기억하다	종지 종류(명칭)를 쓰시오.
		C.절차적 지식	2. 분석하다	종지, 전조, 화음, 조성을 분석하시오.

본 연구에서 지식과 인지과정의 세부영역을 분류한 예시는 다음 <표IV-34>, <표IV-35>과 같다.

<표IV-34> 지식차원 분류예시

지식차원			
A. 사실적 지식 Factual knowledge	B. 개념적 지식 Conceptual knowledge	C. 절차적 지식 Procedural knowledge	D. 메타인지 지식 Metacognitive knowled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화성음 명칭 • 작곡가 이름 • 출곡양식 명칭 • 악곡의 문화·사회적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념을 제시 • 계명창법이 창안된 원리 • 튜레이션을 설명 • 장르간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화성음 분석 • 전조과정 분석 • 화음 분석 • 형식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에 따라 작곡 • 지도할 내용 • 총보 해석

<표IV-35> 인지과정차원 분류예시

인지과정차원					
1. 기억하다 Remember	2. 이해하다 Understand	3. 적용하다 Apply	4. 분석하다 Analyze	5. 평가하다 Evaluate	6. 창안하다 Cre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을 쓰시오. • 작곡가를 쓰시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헵사코드를 적용하시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타음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 짜임새를 분석하시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못된 것을 찾아 수정하시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내용을 서술하시오.

위의 표에서 ‘인지과정차원-이해하다’는 제외하였는데, 이는 임용시험이 특정 과목의 여러 가지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도별 서양음악 문항을 분석한 결과, ‘사실적 지식-기억하다’와 ‘절차적 지식-분석하다’ 영역의 출제빈도가 가장 높고, 매년 출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블룸의 문항유형은 다음 <표IV-36>와 같다.

<표IV-36> 연도별 블룸의 문항유형 분석

지식	인지과정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합계(%)	
												인지	지식
A. 사실적지식	1.기억하다	6	11	8	8	10	9	4	7	10	9	82(42.7)	83 (43.2)
	2.이해하다												
	3.적용하다												
	4.분석하다									1		1(0.5)	
	5.평가하다												
	6.창안하다												
B. 개념적지식	1.기억하다		4				1			2		7(3.6)	7 (3.7)
	2.이해하다												
	3.적용하다												
	4.분석하다												
	5.평가하다												
	6.창안하다												
C. 절차적지식	1.기억하다	1			1		1					3(1.6)	93 (48.4)
	2.이해하다												
	3.적용하다		1				1	1			2	5(2.6)	
	4.분석하다	12	10	12	8	8	3	5	12	8	4	82(42.7)	
	5.평가하다										1	1(0.5)	
	6.창안하다			1					1			2(1)	
D. 메타인지 지식	1.기억하다		1									1(0.5)	9 (4.7)
	2.이해하다												
	3.적용하다												
	4.분석하다		1	1	2	2						6(3.1)	
	5.평가하다								1			1(0.5)	
	6.창안하다									1		1(0.5)	
총계(%)												192(100)	

2) 문항유형별(객관식, 주관식) 블록의 문항유형 비교

2009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중등 임용시험 문항은 크게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나뉘지며, 주관식은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으로 나뉜다. 이에 블록의 문항유형을 먼저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나누어 비교하고, 그 후에 주관식을 기입형과 서술·논술형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1) 객관식 대 주관식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객관식은 ‘절차적 지식-분석하다(51.9%)’가, 주관식은 ‘사실적 지식-기억하다(45.1%)’의 출제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객관식 문항이 주관식보다 고차원적인 지식과 인지과정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객관식이 주관식보다 고차원적인 문항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 <표IV-37>과 같다.

<표IV-37> 문항유형별(객관식, 주관식) 블록의 문항유형 비교

지식	인지과정	객관식			주관식		
		문항수	인지과정 비율(%)	지식비율 (%)	문항수	인지과정 비율(%)	지식비율 (%)
A. 사실적지식	1.기억하다	31	39.2	39.2	51	45.1	46 (+6.8↑)
	2.이해하다						
	3.적용하다						
	4.분석하다				1	0.9	
	5.평가하다						
	6.창안하다						
B. 개념적지식	1.기억하다			0	7	6.2	6.2 (+6.2↑)
	2.이해하다						
	3.적용하다						
	4.분석하다						

	5.평가하다						
	6.창안하다						
C. 절차적지식	1.기억하다			51.9	3	2.7	46 (-5.9↓)
	2.이해하다						
	3.적용하다				5	4.4	
	4.분석하다	41	51.9		41	36.3	
	5.평가하다				1	0.9	
	6.창안하다				2	1.8	
D. 메타인지 지식	1.기억하다	1	1.3	8.9			1.8 (-7.1↓)
	2.이해하다						
	3.적용하다						
	4.분석하다	6	7.6				
	5.평가하다				1	0.9	
	6.창안하다				1	0.9	

(2) 기입형 대 서술·논술형

임용시험의 주관식 문항은 기입형·서술형·논술형으로 출제되었다. 이를 ‘기입형’과 ‘서술 및 논술형’으로 나누어 출제빈도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기입형 문항은 ‘사실적 지식-기억하다(57.9%)’의 출제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사실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에 속하는 문항만 출제된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서술 및 논술형 문항은 ‘절차적 지식-분석하다(41.5%)’의 출제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기입형에 비하여 좀 더 다양한 지식과 인지과정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주관식 중에서는 ‘기입형’보다 ‘서술 및 논술형’이 보다 고차원적인 문항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 <표IV-38>와 같다.

<표 IV-38> 문항유형별(기입형, 서술·논술형) 블록의 문항유형 비교

지식	인지과정	기입형			서술·논술형		
		문항수	인지과정 비율(%)	지식비율 (%)	문항수	인지과정 비율(%)	지식비율 (%)
A. 사실적 지식	1.기억하다	11	57.9	57.9	28	43.1	44.6 (-13.3 ↓)
	2.이해하다						
	3.적용하다						
	4.분석하다				1	1.5	
	5.평가하다						
	6.창안하다						
B. 개념적 지식	1.기억하다			42.1	3	4.6	4.6 (+4.6 ↑)
	2.이해하다						
	3.적용하다						
	4.분석하다						
	5.평가하다						
	6.창안하다						
C. 절차적 지식	1.기억하다			42.1	1	1.5	47.7 (+5.6 ↑)
	2.이해하다						
	3.적용하다	2	10.5		2	3.1	
	4.분석하다	5	26.3		27	41.5	
	5.평가하다	1	5.3				
	6.창안하다				1	1.5	
D. 메타인지 지식	1.기억하다			3.1 (+3.1 ↑)			3.1 (+3.1 ↑)
	2.이해하다						
	3.적용하다						
	4.분석하다						
	5.평가하다				1	1.5	
	6.창안하다				1	1.5	

4. 서양음악 출제악곡 분석

음악과 임용시험은 교과특성상 특정 음악의 작곡가나 특징 등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작품의 악보를 제시하고 응시자로 하여금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문항이 다수 출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악보를 제시한 문항을 1차 분류하고, 그 중에서 작품의 제목과 작곡가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항만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1) 시대별 배점비율 분석

서양음악 악곡은 분석도구에서 제시한 대로 크게 ‘서구권’과 ‘비서구권’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여기에서 서구권 음악은 고대·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 낭만, 근·현대의 7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연도별 악곡문항의 출제비율을 분석한 결과, ‘근·현대(50.1%)’ 영역이 가장 큰 배점비율을 보였으며, ‘고대·중세(18.4%)’, ‘낭만(9.1%)’ 순으로 높았다. 가장 낮은 배점비율을 보인 영역은 ‘고전(5.4%)’영역이었다.

<표 IV-39> 악곡의 시대별 배점비율

평가영역	연도	배점 (%)									합계 (%)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서구권	고대·중세		25 (80.6)			2 (5.1)						27 (18.4)
	르네상스		2 (6.5)	2 (5.7)			4 (50)					8 (5.4)
	바로크				2.9 (15)	2 (5.1)	4 (50)					8.9 (6.1)
	고전			2 (5.7)		1.9 (4.8)					4 (100)	7.9 (5.4)
	낭만	0.8 (66.7)	2.5 (8.1)	3.5 (10)	4.94 (25.5)	1.6 (4.1)						13.34 (9.1)
	근·현대	0.4 (33.3)		25 (71.4)	7.33 (37.9)	32 (81)		5 (100)	4 (100)			73.73 (50.1)
비서구권		1.5 (4.8)	2.5 (7.1)	4.17 (21.6)							8.17 (5.6)	
총계 (%)		1.2 (100)	31 (100)	35 (100)	19.34 (100)	39.5 (100)	8 (100)	5 (100)	4 (100)	4 (100)	147.04 (100)	

2) 시대별 문항 수 분석

연도별로 출제빈도수를 분석한 결과, 문항유형이 서답형으로 바뀐 2014년도 이후 악곡문항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시대별 빈도수는 ‘근·현대(9회)’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으며, ‘낭만(8회)’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출제빈도를 보인 영역은 ‘고대·중세(2회)’였다. 연도별 악곡 출제빈도수는 다음 <표IV-40>과 같다.

<표IV-40> 악곡의 시대별 출제빈도수

평가영역	연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합계 (%)
		서구권	고대·중세		1			1				
르네상스			1	1			1					3 (9.1)
바로크					2	1	1					4 (12.1)
고전				1		2					1	4 (12.1)
낭만	1		1	2	3	1						8 (24.2)
근·현대	1			1	3	2		1	1			9 (27.3)
비서구권		1	1	1								3 (9.1)
총계 (%)												33(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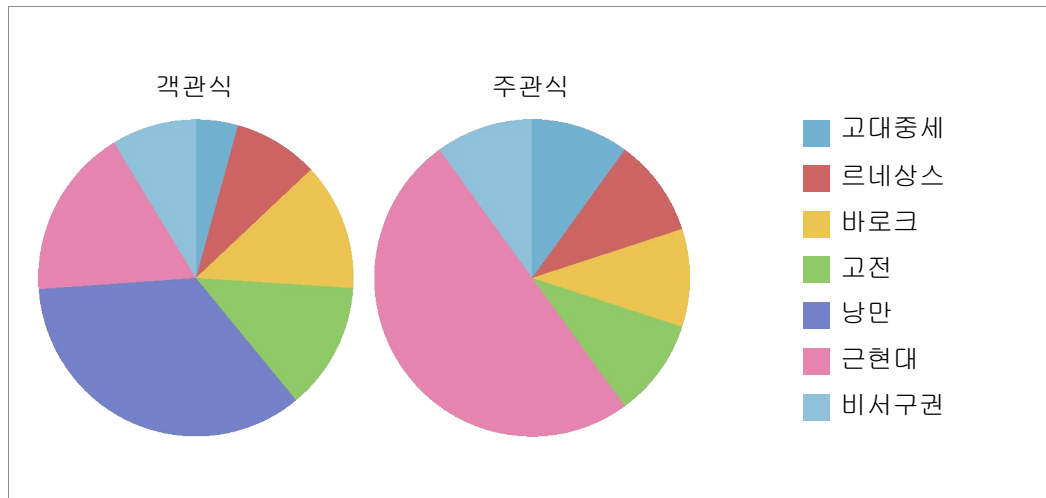
(1) 문항유형별(객관식, 주관식) 비교

문항유형을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나누어 악곡의 출제빈도수를 비교한 결과, 객관식에서는 ‘낭만(34.8%)’이, 주관식에서는 ‘근·현대(50%)’의 출제 비율이 높았다. 객관식 문항에서는 주로 <보기>에서 특정 시대나 악곡형식을 설명하고, 이에 해당하는 악곡을 고르는 형태의 문항 출제가 많았으며, 주관식에서는 근·현대 악곡을 제시하여 이를 분석하는 형식의 문항이 출

제빈도수가 높았다. 분석결과는 다음 <표IV-41>와 같다.

<표IV-41> 문항유형별(객관식, 주관식) 약곡의 시대별 출제비율 비교

평가영역	문항유형	객관식		주관식	
		출제 빈도수	비율(%)	출제 빈도수	비율(%)
서구권	고대·중세	1	4.3	1	10 (+5.7↑)
	르네상스	2	8.7	1	10 (+1.3↑)
	바로크	3	13	1	10 (-3↓)
	고전	3	13	1	10 (-3↓)
	낭만	8	34.8		0 (-34.8↓)
	근·현대	4	17.4	5	50 (+32.6↑)
비서구권		2	8.7	1	10 (+1.3↑)
합계		23	100	10	100



[그림IV-7] 문항유형별(객관식, 주관식) 약곡의 시대별 출제비율 비교

3) 악곡출처 분석

서양음악 출제악곡의 출처 분석은 중·고등학교 교과서 34종을 중심으로 하되 교과서 외의 악곡은 서양음악 이론서를 참고하였다. 2009 개정 중학교 교과서는 출판사 이름을 표기하였으나, 고등학교 교과서는 ‘음악과 생활’, ‘음악과 진로’, ‘음악과 매체’, ‘음악사’, ‘음악이론’으로 구분되므로, 교과서명과 출판사명을 나누어 표기하였다. 또한 서양음악 이론서는 대표 저자명이나 도서명 가장 앞의 글자로 표기하였다.

(1) 고대·중세

고대 및 중세의 악곡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모두 찾을 수 있었으며, 출처는 다음 <표IV-42>와 같다,

<표IV-42> 고대·중세 악곡의 출처분석

연도	문항번호	악곡명	중학교 교과서 (출판사)	고등학교 교과서	
				교과서	출판사
2010	2차_3-1	성요한 찬미가 <너의 시종들이 마음껏>	세광음악출판사	음악과 생활	(㉞)교학사 (㉞)음악과생활 (㉞)지학사 (㉞)천재교육 현대음악
				음악과 매체	제주교육청
				음악사	제주교육청
2013	1차_21	부활절 대축일 미사 <파스카의 희생을 찬미하라>		음악과 생활	(㉞)아침나라
				음악사	제주교육청

(2) 르네상스

르네상스 악곡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모두 찾을 수 있었으며, 출처는 다음 <표IV-43>와 같다.

<표 IV-43> 르네상스 악곡의 출처분석

연도	문항번호	악곡명	중학교 교과서 (출판사)	고등학교 교과서	
				교과서	출판사
2010	1차_13	팔레스트리나 <교황 마르첼리 미사-키리에>	(주)비상교육	음악과 생활	(주)교학사 (주)금성출판사 (주)박영사 (주)아침나라 (주)중앙교육
2011	1차_17	조스캥 <내 아들 압살론>		음악과 생활	(주)교학사 (주)음악과생활
2014	전공B_1	세르미지 <상송-살아있는한>		음악사	제주교육청

(3) 바로크

바로크의 악곡은 2013년도 1차 24번 문항의 ‘헨델-오라토리오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곡을 중·고등학교 교과서와 이론서에서 찾을 수 있었다. 교과서에 없는 악곡은 이론서를 통해 출처를 밝혔다. 분석결과는 다음 <표 IV-44>와 같다.

<표 IV-44> 바로크 악곡의 출처분석

연도	문항번호	악곡명	중학교 교과서 (출판사)	고등학교 교과서		이론서
				교과서	출판사	
2012	1차_12	바흐 <음악의 헌정>				그라우트 새들배
	1차_22	카치니 <내 사랑 아마틸리>				두길 민은기 홍세원
2013	1차_24	헨델 <메시아-할렐루야>	교학사 동아출판(주) 세광음악출판사 (주)박영사 (주)와이비엠 (주)중앙교육 (주)천재교과서 (주)천재교육 현대음악	음악과 생활	(주)금성출판사 (주)박영사	
		헨델 <오라토리오-여호수아>				
		헨델	(주)지학사			

		<리날도 중 레지타티보 부분> 마흐 <칸타타 BWV 147> 카리시미 <오라토리오-입다> 릴리 <오페라-아르미데>				민은기 두길 두길
2014	전공A_서술5					

(4) 고전

고전의 악곡은 2011년도 1차 23번 문항의 ‘베토벤-교향곡 6번 3,5악장’을 제외한 모든 곡을 중·고등학교 교과서와 이론서에서 찾을 수 있었다. 교과서에 없는 악곡은 이론서를 통해 출처를 밝혔다. 분석결과는 다음 <표IV-45>와 같다.

<표IV-45> 고전 악곡의 출처분석

연도	문항번호	악곡명	중학교 교과서 (출판사)	고등학교 교과서		이론서
				교과서	출판사	
2011	1차_23	베토벤 <교향곡-전원 3악장, 5악장>				
2013	1차_22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서곡>		음악과 생활	(주)교학사	
	1차_23	모차르트 <마술피리- 밤의 여왕 아리아>	(주)중앙교육	음악과 생활	(주)미래엔	
		모차르트 <마술피리- 아름다운 방울소리>	(주)금성출판사 (주)비상교육 (주)아침나라 (주)중앙교육			
2018	전공A_9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편지의 2중창>		음악과 생활	(주)아침나라 (주)중앙교육	
				음악과 진로	(주)음악과생활 (주)천재교육	

(5) 낭만

낭만의 악곡은 2009년도 1차 26번 문항의 ‘레스피기-보르게제 저택의 소나무’를 제외한 모든 곡을 중·고등학교 교과서와 이론서에서 찾을 수 있었다. 교과서에 없는 악곡은 이론서를 통해 출처를 밝혔다. 분석결과는 다음 <표Ⅳ-46>와 같다.

<표Ⅳ-46> 낭만 악곡의 출처분석

연도	문항번호	악곡명	중학교 교과서 (출판사)	고등학교 교과서		이론서
				교과서	출판사	
2009	1차_26	무소르그스키 <전람회의 그림- 1곡 난쟁이>	(주)성안당 현대음악	음악과 생활	(주)아침나라	
		그리그 <피아노협주곡>	(주)교학사 동아출판(주) (주)중앙교육 (주)천재교과서	음악과 생활	(주)지학사	
		레스피기 <로마의 소나무 1부- 보르게제 저택의 소나무>				
2010	1차_27	푸치니 <잔니스키키- 사랑하는 아버지>	(주)성안당	음악과 생활	(주)박영사 (주)아침나라 (주)천재교육 현대교육	
		베르디 <리콜레토-여자의마음>	(주)미래엔 (주)박영사 (주)비상교육 (주)성안당 (주)아침나라 (주)음악과 생활 (주)중앙교육 현대음악	음악과 생활	(주)금성출판사 (주)미래엔 (주)박영사 (주)음악과생활	
		비제 <카르멘- 투우사의 노래>	교학사	음악과 진로	(주)천재교육	
		푸치니 <토스카- 별은 빛나건만>		음악과 생활	(주)아침나라	
		푸치니 <라보엠-그대의 찬손>				그라우트
2011	1차_18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 연인 악상>	동아출판(주)	음악과 생활	(주)교학사 (주)미래엔 (주)음악과생활	

		바그너 <트리스탄과 이졸테>	(주)와이비엠 (주)천재교과서	음악과 생활 음악사	(주)미래엔 (주)천재교육 제주교육청	
	1차_25	슈베르트 <마왕>	도서출판태성 동아출판(주) 세광음악출판사 (주)교학사 (주)미래엔 (주)비상교육 (주)성안당 (주)아침나라 (주)와이비엠 (주)음악과생활 (주)지학사 (주)천재교과서 (주)천재교육 현대음악	음악과 생활	(주)음악과생활 현대음악	
2012	1차_12	리스트 <전주곡 2부>				그라우트 민은기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 연인 악상>	동아출판(주)	음악과 생활	(주)교학사 (주)미래엔 (주)음악과생활	
		슈베르트 <세레나데>		음악과 생활 음악과 진로	현대음악 (주)교학사	
		멘델스존 <교향곡-이탈리아 1악장>				그라우트
	1차_16	비제 <카르멘-세기디야>				두길
	1차_20	보로딘 <중양 아시아의 초원에서>		음악과 생활	(주)교학사 (주)음악과생활	
		바그너 <탄호이저 서곡>	(주)금성출판사			
2013	1차_22	베버 <마탄의 사수>		음악과 생활	(주)박영사	
		멘델스존 <펄갈의 동굴>		음악과 생활	(주)박영사	
		브람스 <대학축전 서곡>	세광음악출판사 (주)음악과생활 현대음악			
		차이콥스키 <1812 서곡>		음악과 생활	(주)교학사 (주)박영사 (주)중앙교육	

(6) 근·현대

근·현대의 악곡은 2013년도 1차 25번 문항의 ‘블레즈-주인 없는 망치’와 2016년도 전공B 4번 문항의 ‘라이히-바이올린 페이즈’의 두 곡을 제외한다.

모든 곡을 중·고등학교 교과서와 이론서에서 찾을 수 있었다. 교과서에 없는 악곡은 이론서를 통해 출처를 밝혔다. 분석결과는 다음 <표IV-47>와 같다.

<표IV-47> 근·현대 악곡의 출처분석

연도	문항번호	악곡명	중학교 교과서 (출판사)	고등학교 교과서		이론서
				교과서	출판사	
2011	2차_1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봄의 정후와 젊은 남녀의 춤>	세광음악출판사 (주)교학사 (주)미래엔 (주)성안당 (주)지학사 (주)천재교과서 (주)천재교육 현대음악	음악과 생활	(주)교학사 (주)미래엔 (주)아침나라 현대음악	
				음악사	제주교육청	
2012	1차_20	거쉰 <랩소디 인 블루>	세광음악출판사 (주)성안당 (주)아침나라 (주)와이비엠 (주)음악과 생활 현대음악	음악과 생활	(주)아침나라	
	1차_26	존케이지 <프리페어드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와 프렐류드>		음악과 진로	(주)교학사	
		드뷔시 <기쁨의 섬>		음악과 생활	(주)천재교육	
		베르크 <보체크 3막>				그라우트 두길 민은기
	2차_1	바르토크 <알레그로 바르바로>				두길
2차_1	쾨베르크 <바르샤바의 생존자>	세광음악출판사 (주)음악과생활 (주)지학사	음악과 생활	(주)아침나라 (주)중앙교육		
2013	1차_25	블레즈 <구조1>				두길 민은기 새들배
		블레즈 <주인 없는 망치>				
	2차_3	쾨베르크 <피아노모음곡 op.25>		음악과 생활	(주)중앙교육	
		쾨베르크 <정화된 밤>	(주)음악과생활			
	쾨베르크 <달에 홀린 피에로 - 병든달>	도서출판태성				
2015	전공B_1	슈톡하우젠 <크로이츠펠>				두길

		존케이지 <4분 33초>				두길
2016	전공B_4	라이히 <바이올린 페이즈>				
		리게티 <아트모스페레>		음악 이론	제주교육청	

(7) 비서구권

비서구권의 음악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모두 찾을 수 있었으며, 분석결과는 다음 <표Ⅳ-48>와 같다.

<표Ⅳ-48> 비서구권 악곡의 출처분석

연도	문항번호	악곡명	중학교 교과서 (출판사)	고등학교 교과서	
				교과서	출판사
2010	1차_24	멕시코 민요 <라쿠카라차>	동아출판(주) (주)성안당 (주)중앙교육 (주)지학사		
		쿠바 민요 <관타나메라>	동아출판(주) (주)박영사 (주)성안당 (주)아침나라 (주)천재교과서 현대음악	음악과 생활	(주)중앙교육 (주)천재교육 현대음악
2011	1차_28	중국 민요 <모리화>	교학사 동아출판(주) 세광음악출판사 (주)교학사 (주)금성출판사 (주)미래엔 (주)박영사 (주)비상교육 (주)성안당 (주)음악과생활 (주)천재교과서 (주)천재교육 현대음악	음악과 생활	(주)박영사
		베트남 민요 <리 디아 반보>	현대음악		
		인도네시아 민요 <봉아완 솔로>	(주)음악과생활 (주)천재교과서	음악과 생활	(주)중앙교육
2012	2차_1	남아프리카 민요 <또웅구포트와네>		음악과 생활	(주)교학사

5.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의 문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9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음악과 임용시험의 영역 간 배점비율은 국악(34.6%)이 가장 높았으며, 음악교육학(31.9%)이 가장 낮았다.

① 차시별로 분석한 결과, 1차 또는 전공A에서는 교과내용학이, 2차 또는 전공B에서는 교과교육학의 배점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시험체제가 개편된 2014년도를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음악교육학의 배점비율은 낮아진 반면 국악의 배점비율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③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객관식에서는 서양음악(38.7%)이 가장 높았고, 주관식에서는 음악교육학(35.2%)이 가장 높았다.

둘째, 서양음악 문항을 세부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전 영역에서 고르게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① 세부영역별 출제빈도수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출제된 영역은 ‘서양음악사(52회)’와 ‘화성법(49회)’이었으며, 매년 출제되는 세부평가영역은 ‘음악형식론-악곡형식’과 ‘화성법-화음’이었다.

② 세부영역별 배점비율은 ‘서양음악사(51.8%)’가 가장 높았고 ‘화성법(18.1%)’이 그 뒤를 이었다.

③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객관식에서는 ‘반주(7.8%)’, ‘지휘(6.8%)’, ‘대위법(5.8%)’이 주관식보다 많이 출제되었고, 주관식에서는 ‘음악형식론(12.7%)’, ‘음악분석(8.5%)’, ‘음악통론(8.5%)’이 객관식보다 많이 출제되었다.

셋째, 블룸의 신교육목표분류학으로 문항유형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는 ‘사실적 지식-기억하다(82회)’와 ‘절차적 지식-분석하다(82회)’의 문항 수가 가장 많았고, 매년 비슷한 비율로 출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나누어 블룸의 문항유형을 비교한 결과, 객관식 문항은 ‘절차적 지식-분석하다(51.9%)’가, 주관식에서는 ‘사실적 지식-기억하다(45.1%)’의 문항 수가 가장 많았다.

② 주관식 문항을 기입형과 서술·논술형으로 나누어 블룸의 문항유형을 비교한 결과, 기입형 문항은 ‘사실적 지식-기억하다(57.9%)’의 문항 수가 가장 많았으며, ‘사실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에 속하는 문항만 출제되었다. 반면 서술 및 논술형 문항은 ‘절차적 지식-분석하다(41.5%)’의 문항 수가 가장 많았으며, 기입형에 비하여 좀 더 다양한 지식과 인지과정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서양음악 출제악곡을 분석한 결과, ‘근·현대’의 문항 수와 배점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① 시대별 문항 수는 ‘근·현대(9회)’, ‘낭만(8회)’, ‘고전(4회)’과 ‘바로크(4회)’ 순으로 많았으며, ‘고대·중세(2회)’문항이 가장 적었다.

② 배점비율은 ‘근·현대(50.1%)’, ‘고대·중세(18.4%)’, ‘낭만(13.34%)’ 순으로 높았으며, ‘고전(5.4%)’이 가장 낮았다.

③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객관식에서는 ‘낭만(34.8%)’이, 주관식에서는 ‘근·현대(50%)’의 출제비율이 높았다.

다섯째, 악곡출처 분석결과, 전체 악곡 중 75.8%를 교과서에서 찾을 수 있었다. 출처를 찾지 못한 악곡은 62곡 중 5곡(8.1%)이었지만, 문항에서 해당 작품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거나, ‘스티브라이히-바이올린페이즈’와 ‘피아노페이즈’처럼 비슷한 작품을 제시함으로써, 악곡을 유추하여 풀 수 있도록 하였다.

V. 결론

본 연구는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사의 역량이 확대됨에 따라 교사 선발제도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전제로 진행되었다. 그에 따라 음악과 임용시험 문항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가진 교사를 선발해야하는 임용시험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임용제도가 객관식 문항을 포함한 3단계 전형으로 크게 개편된 2009년도를 시작점으로 2018년도까지 10년간 출제된 음악과 전공필기 문항을 서양음악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과 임용시험의 영역 간 배점비율을 분석한 결과, 최근 교과내용학의 배점비율은 높아지고 교과교육학의 배점비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변화된 교육현장에 맞춰서는 교과교육학 문항의 비중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이는 최근 교육현장이 단순히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교사중심수업에서 벗어나,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육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 학생중심수업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서양음악 문항을 세부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전 영역에서 고르게 출제되고 있으나, 배점비율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였음을 알 수 있었다. ‘서양음악사(51.8%)’와 ‘화성법(18.1%)’이 서양음악 전체 점수의 약 70%를 차지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응시자로 하여금 해당과목에 대한 중요성 정도를 잘못 인식하게 할 수 있으므로, 평가영역 간의 균등한 배점배분이 필요하다.

셋째, 서양음악 문항을 ‘블룸의 신교육목표분류학(앤더슨의 인지적 영역 분류체계표)’으로 분석한 결과, 객관식이 주관식보다 고차원적인 문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차원적 지식에 해당하는 ‘절차적 지식’과 ‘메타인지 지식’의

비율을 살펴보면, 객관식이 주관식보다 각각 5.9%, 7.1% 높았다. 또한, 주관식을 ‘기입형’과 ‘서술·논술형’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로는, ‘서술·논술형’ 문항이 ‘기입형’보다 다양한 지식과 인지과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높은 수준의 문항을 출제하기 위해서는 객관식 문항이 선택되어야 하며, 주관식 문항 중에서는 서술·논술형이 선택되어야 한다.

넷째, 출제된 악곡의 출처를 분석한 결과, 75.8%를 2009 개정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찾을 수 있었으며 출처를 찾지 못한 악곡은 62곡 중 5곡(8.1%)이었다. 그러나 실제 수업은 교과서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예비교사들이 실제 교육현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과서의 출제비율을 높여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음악과 임용시험의 출제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예비교사들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임용시험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민선 외(2014). 중학교 음악. 교학사.
- 경기도교육청(2014). 중학교 음악. (주)중앙교육.
- 경기도교육청(2014). 음악과 생활. (주)중앙교육.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2015). 2015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고시 제2015-80호.
- 김광옥 외(2014). 음악과 생활. (주)아침나라.
- 김미숙 외(2014). 중학교 음악. (주)와이비엠.
- 김보경(2015). 2009년~2015년 음악과 중등교원 임용고사 출제경향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미, 최병옥(2013). 2009~2013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음악과 문항의 출제경향 분석. 음악교육연구. 42(3).
- 김옥남(2006). 인지적 영역의 교육목표분류학 비교. 한국교육학연구, 12(2).
- 김용희 외(2014). 중학교 음악. (주)금성출판사.
- 김용희 외(2014). 음악과 생활. (주)금성출판사.
- 김지현 외(2014). 음악과 매체. (사)한국검인정(제주교육청).
- 미래사회연구실(2015). ECOsight3.0: 미래기술전망. ECO시리즈, 15(2).
- 민경훈 외(2014). 음악이론. (사)한국검인정(제주교육청).
- 민은기 외(2014). 서양음악사. 파주: 음악세계.
- 민은기 외(2014). 중학교 음악. (주)천재교육.
- 민은기 외(2014). 음악과 생활. (주)천재교육.
- 민은기 외(2014). 음악과 진로. (주)천재교육.
- 박미현(2016). 2012-2016 음악과 중등교사 임용시험 문항 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자 외(2014). 중학교 음악. (주)아침나라.
- 백민경(2017). 중등 가정교과 임용시험 문항의 출제경향 분석: 2009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9(2).
- 변미혜(2013). 중등 음악 임용고사 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향. 국악과교육, 36.
- 양은주 외(2014). 음악과 진로. (주)교학사.
- 양종모 외(2014). 중학교 음악. (주)음악과생활.
- 양종모 외(2014). 음악과 생활. (주)음악과생활.
- 양종모 외(2014). 음악과 진로. (주)음악과생활.
- 유정은(2015). 음악 중등교사 임용고사의 분야별 기출문항 분석. 음악교육공학, 25.
- 윤명원 외(2014). 중학교 음악. (주)천재교과서.
- 윤성원(2015). PCK에 근거한 음악교사 임용시험의 내용탐색. 음악교육공학, 22.
- 이근호, 이광우, 박지만, 박민정(2013).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 연구(연구보고CRC2013-17),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인제, 이명준, 이창훈, 동효관, 남민우, 박선화, 신향수, 심재호, 서지영, 조성기, 양윤정, 김진석, 오상철, 이용백, 이수정, 이재봉, 황인표(2008). 2009학년도 개편 중등교사 신규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의 『표시과목』의 교사 자격 기준 개발과 평가영역 상세화 및 수업능력 평가연구(연구보고 CRE2008-9-5).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홍수 외(2014). 중학교 음악. (주)교학사.
- 이홍수 외(2014). 음악과 생활. (주)교학사.
- 임유나(2017). 역량기반 교육목표 개발과 분석을 위한 Hauenstein 신교육목표 분류학의 재조명.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1).
- 임중현, 유경훈, 김병찬(2017).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교육의 방향과 교원의 역

- 량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교육,44(2).
- 장기범 외(2014). 중학교 음악. (주)미래엔.
- 장기범 외(2014). 음악과 생활. (주)미래엔.
- 장보운 외(2014). 중학교 음악. 현대음악.
- 정길선 외(2014). 중학교 음악. (주)지학사.
- 정유희 외(2014). 중학교 음악. (주)성안당.
- 정제영(2017).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학교제도 개선방안: 개인별 학습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교육정치학연구. 24(3).
- 조치노 외(2014). 음악사. (사)한국검인정(제주교육청).
- 주광식 외(2014). 중학교 음악. (주)박영사.
- 주광식 외(2014). 음악과 생활. (주)박영사.
- 주대창 외(2014). 중학교 음악. 도서출판태성.
- 최상훈(2003). 역사과 교원임용고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육논총7.
- 최은식 외(2014). 중학교 음악. 동아출판(주).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0년사. p.158.
- 허영한(2009). 새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 선곡집. 서울:심설당.
- 허화병 외(2014). 중학교 음악. 세광음악출판사.
- 허화병 외(2014). 음악과 생활. 현대음악.
- 홍미희 외(2014). 중학교 음악. (주)비상교육.
- 홍선주, 이명진, 최영인, 김진숙, 이연수(2016). 지능 정보사회 대비 학교 교육의 방향 탐색(연구자료ORM2016-26-9).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홍세원(2014). 서양음악사. 서울: 연세대학교대학출판문화원.
- 홍정수 외(2006). 두길 서양음악사. 파주: 나남.
- 황병숙 외(2014). 음악과 생활. (주)지학사.
- Anderson et al.(2001). *A Taxonomy of Learning, Teaching, and*

Assessment. 강현석 외 (역). 교육과정 수업 평가를 위한 새로운 분류학.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Grout 외(2009). 그라우트의 서양음악사. 서울: 이앤비플러스.

Hauenstein, A. D. (2004). *A conceptual framework for educational objectives*. 김인식 외 (역). 신 교육목표분류학. 경기: 교육과학사.

Marzano et al.(2012). *The new taxonomy of education objectives*. 강현석 외 (역). 새로운 교육목표 분류학. 서울: 원미사.

김용재. (1991. 1. 21.). "91解剖(해부)교원공개임용". 경향신문, p.17. 2017. 10. 28. 검색.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1012100329217001&editNo>
"敎員(교원)채용順位(순위)고사 6月下旬(월하순)실시". (1973. 5. 22.). 경향신문, p.7. 2017. 11. 21. 검색.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3052200329207005&editNo>
"국공립師大(사대)출신 우선임용 교육공무원법 違憲(위헌)결정". (1990. 10. 8.). 동아일보, p.19. 2017. 10. 28. 검색.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0100800209219002&editNo>
"國立敎大(국립교대)·師大生(사대생) 우선 敎員採用(교원채용) 順位(순위)고사 施行(시행)지침". (1973. 8. 3.). 경향신문, p.7. 2017. 11. 21. 검색.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3080300329207019&editNo>
"無試驗(무시험)·銓衡(전형)·考試(고시) 敎員資格檢定令(교원자격검정령)". (1964. 2. 22.). 경향신문, p.7. 2018. 3. 23. 검색.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4022200329207027&editNo>

한국검인정교과서 (<http://www.ktbook.com>)

한국교육과정평가원 (<http://www.kice.re.kr>)

ABSTRACT

An Analytical Study on Secondary School Music Teacher Recruitment Examination Past Papers : Focusing on 2009–2018 Western Music Questions

Kang, Han-Saem
Music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utilize an analysis on secondary school music teacher recruitment examination focused on questions about Western music as a basic material to set the direction of examination, and to help pre-teachers to take advantage of the same knowledge in real situations by analyzing the relevance between past paper questions and textbooks. For this, the contents of exam questions and their mark distributions in the music major exam from years 2009 to 2018 (10 years) were analyzed. Also, the results according to the types (whether multiple choice or subjective) of questions were compared. Criteria for setting the questions were cited from textbooks that contain the Western music in the exam. The analytical tool was modified based on

「Secondary School Music Teacher Recruitment Examination Evaluation Territory and Evaluation Factor」 suggested by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KICE, 2008). A taxonomy for cognitive domain developed by Anderson, who modified the conventional Bloom's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was adopted as the analytical tool for question type. The result of the present study is as follows:

First, in the result of the mark distributions in the different sections of the music major, the mark distribution of Korean Traditional Music was the highest (34.6%) and the mark distribution of Subject Matter Education was the lowest (31.9%). In the primary test (Major A), the mark distribution of Subject Matter Content was high, while the mark distribution of Subject Matter Education was high in the secondary test (Major B).

Second, in an investigation for detailed domains of Western music questions, it was found that the questions were evenly cited from all domains. Most frequently cited domains were 'History of Western Music (52 times)' and 'Law of Harmony (49 times).' Detailed domains for evaluation which are cited every year were 'Musical Formalism - Format of Music', and 'Law of Harmony - Chord.' The mark distribution was the highest in 'History of Western Music (51.8%)', followed by 'Law of Harmony (18.1%).'

Third, in the analysis of questions type using Bloom's new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Anderson's taxonomy for cognitive domain), it was found that multiple choice questions were more sophisticated than the subjective questions. Also, the subjective questions were classified

into short-answer questions and narrative-essay-type questions. The narrative-essay-type questions were found to have required more diverse knowledge and cognitive processes than did the short-answer questions.

Fourth, the questions involving the Western music were cited from different era. There were 9 questions on Modern and Contemporary Music and 8 questions on Music of Romantic Age, which were the first and second most frequently cited. There were least citations (2 times) on questions on Music of Ancient and Middle Age. Mark distributions were the highest in Modern and Contemporary Music (50.1%), followed by Music of Ancient and Middle Age (18.4%). The lowest was the Classical Music (5.4%).

Fifth, in the analysis on the source of music pieces, 75.8% of the entire music was from the year 2009 revised textbooks of middle and high schools. Those without sources were 5 pieces among 62 pieces (8.1%).

The expected effect of the present study is to use the result in setting the direction of music teacher recruitment examination, and to help pre-teachers to utilize the knowledge in the field.